보금자리에 비낀 사랑의 세계



평양
출판사

주체111(2022)년

보금자리에 비낀 사랑의 세계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머 리 글

사람이 살아가자면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

보금자리는 인간의 안식처이고 한가정의 요람이며 생활과 웃음이 꽃펴나는 터전이다. 보금자리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둥지없는 날새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며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마는것이다.

하기에 예로부터 《설음중에 큰 설음은 집없는 설음》이라 했고 《어려서는 어머니가 집이고 커서는 집이 어머니》, 《제 집은 담벽만 보아도 병이 낫는다.》는 말도 전해져왔다.

어느한 시인은 《모두가 <행복>이라 부르는 곳, 당신의 웃음이 가장 밝아보이는 곳, 오늘보다 더 행복한 래일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인간의 보금자리를 노래하기도 했다.

장구한 인류사의 갈피를 더듬어봐도 인간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특히 시대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물질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인류의 리상과 욕망은 날로 더 강렬해지고있다.

고도의 문명과 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살림집 건설은 인류의 이런 꿈과 리상을 담아 매우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곧 그 나라의 국력과 문명정도를 특징짓는 척도로까지 되였다.

하여 지구상에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층건물들을 일떠세워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독특한 건축형식의 살림집들과 웅장화려한 거리들을 건설하여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 발전된 기술과 문명의 산물이 어느 국가에서나 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골고루 차례지고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똑같이 향유하는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되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부자들을 위한 호화주택이나 거리들은 많아도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과 거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화려한 거리가 일떠서면 의례히 돈많은 특권층의 소유로, 그들의 유흥가로 리용되는것

이 보편적이다. 한것은 그것을 건설하는 목적 그자체가 인민들의 문명과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몇 안되는 권력가, 자산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리윤, 치부만을 위해서이기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현대적인 살림집과 거리가 있다 해도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한갖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번쩍거리는 그 문명의 세계에서 산다는것은 엄두도 낼수 없는 일로 간주되고있다.

지금도 문명과 발전을 떠드는 그 나라들의 번화한 거리들뒤에는 더 많은 빈민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제 집이 없는 세대가 부지기수인 반면에 몇 안되는 특권층은 호화주택을 여러채나 가지고있으면서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하며 사회의 량극화를 더욱 재촉하고있는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세계의 비참한 현실이다.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섞인 한숨소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울려나오는 지금 집문제가 제일 빛나게 해결되여가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공화국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수풀처럼 솟아나고 평범한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의 주인으로서 궁궐같은 새집들을 무상으로 받아안으며 복락을 누려가고있다.

인민이라는 하나의 자격만으로도 행복의 보금자리, 문명의 보금자리의 주인으로 되는 나라.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것이 국책으로 되여있는 이 땅에서는 인민의 보금자리문제를 중대사로 여기고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뜻밖에 자연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불행이 아니라 한날한시에 희한한 새집들을 받아안는 행운을 지니는 이런 꿈같은 현실을 이 땅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또 찾아볼수 있겠는가.

령도자가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두고 그토록 고심하고 사색하고 헌신하는 나라, 누구나 집걱정을 모르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인민이라면 제일 좋고 훌륭한 살림집에서 행복하게 살며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숭고한 뜻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자면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풍부한 지식,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재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

을 마련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돌우에도 꽃을 피울 정성을 기울이면 못할것이 없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길에 자욱자욱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고계신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더 좋고 문명한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안겨주시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해마다 웅장하고 황홀한 새 거리, 선경마을들을 일떠세워주시고 명당자리마다에 인민을 위한 멋쟁이보금자리들이 솟아날 때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누구보다 제일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친히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현대적이며 멋진 살림집을 지어주시고도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몸소 아빠트의 높은 층계도 앞장서 밟아보시고 누구도 미처 몰랐던 창문짬의 바람소리도 가려들으시며 집주인의 심정으로, 친어버이의 마음으로 세심히 보살피시는 따뜻한 그 손길이 있어 이 땅에 일떠선 모든 보금자리들이 하나같이 훌륭한것이 아닌가.

가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 문명의 터전을 마련해주시고도 베푸신 사랑이 적으신듯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를 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수많은 가정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집들이기쁨도 함께 나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 인민을 위함이라면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멸사복무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차 례

Ⅰ. 크나큰 리상, 철석의 의지로

❀ 웅장하고 황홀한 거리 련이어 펼치시여

흔히 사람들은 건축물을 두고 시대의 기념비라고 한다. 한것은 해당 나라와 지역의 문명을 보여주는 건축처럼 그 시대의 성격과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척도는 없기때문이다.

허나 단순한 시대적의미나 기념비적상징만으로는 그 천만무게를 다 알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수없이 솟아나는 웅장화려한 인민의 리상거리들이다.

오늘도 눈부시게 훌륭히 일떠선 송화거리의 장쾌한 전경을 바라보느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민이 누리는 행복의 높이이런듯 눈뿌리 아득히 치솟은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다양한 1만세대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보건, 교육, 편의시설들, 여러 휴식공원들,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예술적조화를 이루며 특색있게 건설되여 넓고 시원하게 뻗어나간 도로를 중심으로 꽉 들어찬 장관은 그야말로 황홀경이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각도 깊다. 얼마나 많은 인민의 리상거리, 문명거리들이 이 땅우에 솟아났던가.

수도 평양만 놓고보아도 으뜸가는 명당자리들마다에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훌륭하고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웅장화려한 새 거리들이 해마다 눈부시게 일떠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터전에서부터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을 안아오실 웅지를 안으시고 수도의 곳곳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거리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고계신다.

언제인가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리상거리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창전거리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각이한 건축형식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극장, 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들, 봉사시설들이 구색에 맞게 배치되여 옹근 하나의 큰 건축군을 이룬 황홀한 우리 식의 새 문명거리, 본보기거리가 한폭의 그림마냥 한눈에 안겨왔다.

밝은 색갈의 고급타일과 고급유리건재를 리용하여 마감처리한 건물외벽이며 밤이면 특색있는 불장식으로 희한한 별천지를 펼쳐놓게 될 창전거리의 야경과 함께 인민들이 머지않아 누리게 될 새세기 우리 식의 문명의 세계를 그려보시는

듯 그이의 눈가에는 기쁨이 어려있었다.

일찌기 평양시를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리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이였고 생전의 뜻이였다.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새 거리를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드리시기 위해 창전거리건설을 직접 틀어쥐시고 최단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완공되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속에 그 규모와 폭,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름찼던 창전거리건설이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였던것이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이번에 창전지구공사를 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평양시건설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심중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창전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평양시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의 도시로 꾸리고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살림집들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일념뿐이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를 하루빨리 현대적인 리상거리들로 뒤덮인 하나의 큰 문명도시로 꾸리실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안으시고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규모가 크

게 일판을 벌려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워주시였다.

주체102(2013)년 1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집무탁우에는 일군들이 올린 과학자살림집건설계획안이 놓여있었다.

언제나 과학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여 안겨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하신데 따라 작성된 문건이였다.

그런데 당시 일군들이 올린 문건에는 수백세대규모의 살림집건설계획이 반영되여있었다.

2013년을 건설에서 최전성기의 해로 빛내이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밑에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때라 어디서나 자재와 설비, 로력이 긴장한 형편에서 이만한 규모의 건설계획도 하나의 작지 않는 주택지구건설과 맞먹는 계획이였다.

하지만 일군들이 올린 과학자살림집건설계획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줄 집인데 할바에는 단번에 1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우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과학자살림집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 옹근 하나의 소도시와 맞먹는 리상거리건설을 구상하시며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의 뜨거운 인정미에 일군들은 눈굽이 뜨

거워졌다.

그후 살림집건설계획과 설계를 몸소 지도해주시고 힘있는 건설력량도 파견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재와 설비를 비롯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살림집건설이 빠른 속도로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금방석에 앉혀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에게 금방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자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며 과학자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살림집을 완전무결하게 꾸려놓고 과학자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집들이를 한 다음 손을 대지 않게, 모든것이 만족하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과학자살림집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하게 훌륭하게 완공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하게!

이것이 은하과학자거리건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요구였다.

살림집을 하나 건설해도 세계적수준에서 현대적으로,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하게 손색없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

위인의 숭고한 그 뜻에 떠받들려 은하과학자거리는 착공한

지 일곱달만에 우리 식의 독특한 주택지구건설의 표본으로 훌륭히 완공되였다.

넓은 부지면적에 길이방향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간 륜환식 도로들과 립체감이 나게 들어앉은 1 000여세대에 달하는 현대적인 다층살림집들,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십여개의 장소에 꾸려진 아동공원과 소공원들, 각종 편의봉사시설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인민의 리상거리.

3칸, 4칸, 5칸짜리 살림집들에 공동살림방을 비롯하여 부모방, 부부방 그리고 특색있는 구조의 부엌 등이 배치되여있고 침대, 찬장, 신발장 등 10여종의 현대적인 가구들과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한 난방설비들까지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과학자살림집은 그야말로 호텔이였고 궁전이였다.

주체102(2013)년 9월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히 꾸려진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결과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되였으며 마음을 붙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평범한 과학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과 한량없는 사랑에 의해 은하과학자거리는 이렇듯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금방석,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고 그 사랑속에

다음해인 2014년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솟아나게 되였다.

평양시를 인민의 리상거리가 꽉 들어찬 혁명의 수도로,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지는 미래과학자거리에도 그대로 깃들어있다.

주체104(2015)년 2월 먼지날리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현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미래과학자거리의 종심이 깊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며 그이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도로반대켠에 2단계건설까지 마저 하여야 거리의 종심을 보장할수 있고 1단계에 건설한 대상들이 빛이 나게 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건설규모를 대폭 넓히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겨운 시선으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미래과학자거리위치가 아주 좋다고, 경치좋은 대동강반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서면 창전거리와 대칭되여 평양시의 면모가 한결 달라지게 될것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2단계건설대상에 50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을 더 포함시키며 그우에 과학을 상징하는 탑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의 안목도 틔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에 봉사망형성을 잘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는 우리가 마음먹고 건설하는 대상인것만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현대문명의 본보기거리가 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현대문명의 본보기거리!

이 말씀속에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황홀한 거리, 현대문명이 응축된 우리 식의 특색있는 선경거리로 훌륭히 일떠세워 평양시를 더 웅장화려하게 꾸리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로 위민헌신의 려정을 새겨가시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그후 미래과학자거리는 갖가지 색타일로 마감한 건물외벽과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한 지붕형식으로 단장된 초고층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이 대동강호안을 따라 조화롭게 들어앉은 천연색거리, 그야말로 모든 건축물들이 고도로 예술화된 웅장하고 황홀한 문명거리로 훌륭히 솟아나게 되였다.

하기에 외국의 어느한 신문사 사장은 자기의 체험담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웨브싸이트에 조선의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들을 <어느 나라 도시의 건물들 같은가?>라는 물음과 함께 실었다.

이 물음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중국의 홍콩이나 상해, 마카오의 건물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선의 건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후 내가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건물들이라는 해설글을 올리자 모든 가입자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홀하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비단 한 외국인의 체험담이나 웨브싸이트가입자들의 경탄만이 아니다.

주체104(2015)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현대문명의 선경거리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며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웅근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운다는것은 기존건설공법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문명과 복리를 위해서라면 10년세월도 1년으로 앞당기며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 자신의 로고와 심혈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 땅우에 세월을 주름잡아 달리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주시며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력사는 준엄한 시기나 시련의 시기에도 멈춤없이 더 줄기차게 흘렀다.

주체105(2016)년 3월중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지휘

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 거리 모형사판과 현황도, 배치도, 조감도 등이 전시되여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앞도로에 나오시였다.

마중나온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세계앞에 우리가 또 하나의 새 거리건설을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자고 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몇해동안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새 거리를 4개나 건설하였다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5년이나 10년이나 걸려서야 새 거리를 하나 건설하고있지만 우리는 해마다 하나씩 건설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요즘 초고층건물을 하나 마음먹고 지어볼 생각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몇층짜리인가고 물으시였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문명의 높이를 재여보시는듯 53층이라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일군들과 함께 모형사판을 보아주시면서 이번에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였다.

이윽고 금수산태양궁전과 룡남산쪽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룡흥네거리에 있는 영생탑에서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가는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라고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해솟는 룡남산에서 혁명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의미에서

도 그렇고 건축에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도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라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태양의 성지로 가는 이 거리에는 혁명의 앞날을 상징하는 이름을 달아야 합니다. …

순간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신 력사의 그날 조선을 빛내일 굳은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마루.

온 나라 인민들, 아니 온 세상 인민들의 마음이 굽이쳐오는 태양의 성지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빛나는 려정이 아로새겨진 유서깊은 룡남산마루를 숭엄히 바라보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못잊을 그날에 몸소 읊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노래구절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었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

노래의 구절을 새길수록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미소속에 휘황찬란하게 밝아오는 사회주의강국의 장엄한 새 아침이 아름다운 려명거리의 황홀경에 실려 안겨드는듯싶어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어제는 우주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원대한 구상을 담아 《은하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를 명명해주시고 오늘은 머지않아 다가올 사회주의강국의 려명을 그대로 담아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로 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거리이름을 하나 지어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으시니 그것은 곧 그이의 포부였고 의지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려명거리의 건물들을 금수산태양궁전쪽에는 높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게 건설하여 정중성을 보장하고 영생탑쪽에는 웅장화려하게 건설하여 하나의 건축군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고, 이와 함께 령에네르기, 록색건축기술을 받아들여 주체건축예술의 미래가 반영된 미래형거리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에서는 이것을 기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주체건축예술의 미래가 반영된 미래형거리!

그야말로 웅대한 설계도였고 강인담대한 배짱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는 중대결단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진을 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극도에 달하고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도사리고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한 나라, 한 인민의 운명만이 아닌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존엄과 미래를 수호해야 할 판가리결사전의 엄숙한 시기에 내려진 려명거리건설의 중대결단.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이렇듯 거창한 설계도를 펼친 위인이 과연 있었던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원수님의 강인담대성과 천리혜안의 예지, 비범한 령도실력과 인민사랑이 있어 그처럼 준엄했던 시기에 방대한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하면서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두배나 훨씬 넘는 려명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려명거리는 광실형피동식태양열난방기술과 태양빛유도조명체계, 지열을 리용하여 동력소비를 낮추는 지열환기기술, 음이온발생수지벽지와 음이온발생칠감, 얇은층지붕록화와 벽면록화기술 등 세계적인 최신건축기술이 다 도입된 21세기 에네르

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건축의 실용성과 조형화, 예술화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우리 식의 웅장화려한 새 문명거리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칠줄 모르는 위민헌신은 수도의 가는 곳마다에 해마다 웅장하고 황홀한 세계적인 문명거리, 인민의 리상거리들이 솟아나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 문명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로고에는 절대만족이란 없으시였다.

가까운 앞날에 수도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을 밝혀주시면서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2021년 정초에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해마다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건설작전과 지도를 짜고들어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데 대

하여 제시하시였다.

이어 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살림집건설계획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주시면서 무조건 당대회가 결의한대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년년이 계속되는 원쑤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세계를 휩쓰는 악성비루스에 의한 대재앙,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들…

그 어느때보다 나라사정이 어렵고 공화국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도전과 장애들이 중첩되고있던 때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사업을 당과 정부의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방대한 살림집건설작전을 펼치신 그 숭고한 뜻에 온 나라 인민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좋을 때 쉽게 마련된 행복이라면 이처럼 가슴뜨겁고 마음울리지 않을것이다.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그이의 열정에 넘친 연설은 또 얼마나 천만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

어렵고 힘겨워도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는 멸사복무의 숭고한 세계, 이민위천의 리념이 시련을 박차고 솟구치는 인민의 리상거리의 눈부신 자태를 펼쳐놓은것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수도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하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것만도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던 대용단이였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만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될 보통강다락식주택구건설을 또다시 발기하시였다.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경치좋은 보통강반에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이께서는 문득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저택이 있다고, 그전에는 그 저택을 5호댁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5호댁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한다는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를 묵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저으기 갈리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과 이웃하시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한생의 많은 추억을 남기신 유서깊은 곳.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조국의 눈부신 전진과 비약의 력사가 어려있는 그 저택에 자그마한 사적비조차 세우지 못한 죄스러움을 늘 안고 사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5호댁자리는 보통집터가 아니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5호댁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국가기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짓는다면 인민들이 섭섭해할수 있다고, 우리는 그 구역에 공공건물이 아니라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시며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며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리상에 떠받들려 이 땅에선 수령의 저택자리에 인민의 보금자리가 일떠서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사랑의 전설이 꽃펴나게 되였다.

불과 며칠만에 또다시 현지를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800세대 다락식주택구건설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 도시의 면모

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는 대상건설이라고, 모든 건설단위들에서는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분, 위대한 심장에 인민만이 꽉 들어차있고 온 하루, 온 한해를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시는분.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천만가지 일감을 안으시고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속에 보통강다락식주택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섰으며 오늘도 이 땅에서는 인민의 리상거리, 우리 식의 문명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것이다.

주체111(2022)년 2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0돐을 며칠 앞두고 수도 평양에서는 새로운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포성이 또다시 장쾌하게 울리였다.

뜻깊은 착공식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뗀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목표수행의 두번째 공사인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 단계의 건

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평양을 위하여,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우리 부모형제, 자식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거창하고 훌륭하게 솟구쳐오르는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 이것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의 이민위천, 멸사복무의 숭고한 서사시이며 위민헌신의 빛나는 기념비이다.

❀ 온 나라 곳곳에 문명의 보금자리를

연연 수백리, 사시장철 흰눈을 떠이고 높이 솟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의 천고밀림속에 문명의 별천지가 끝없이 펼쳐졌다.

백두산기슭의 첫동네라고 할수 있는 신무성동으로부터 백삼리, 보서리, 소백산리를 비롯한 삼지연시의 깊고깊은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 리들이 눈부신 새 모습을 펼친 거대한 리상촌으로 전변되였다.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이 각이한 모양새를 자랑하며 다채로운 건축군을 이룬 소재지며 리명수골안의 협곡을 따라 2층, 3층짜리 소층살림집들과 다락식살림집들이 특색있게 솟아오르고 민속려관, 국수집을 비롯한 민족적형식의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배합되여 그야말로 절경중의 절경을 이룬 리명수지구.

멋진 리문화회관이 한가운데 우뚝 솟은 소재지마을과 함께 여러 작업반들이 모두 새로 꾸려진 중흥농장지구와 웅건하게 솟아있는 포태산을 배경으로 새로 일떠선 천백여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한눈에 안겨오는 포태동지구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이 자리잡은 백두산밀영동에도 해빛밝은 문명의 새집들과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탁아소, 유치원이 아담하게 일떠서 눈시울 뜨겁고 깊고깊은 밀림속 5호물동동까지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 펼쳐져 감탄을 자아낸다.

하나의 마을, 한채의 살림집, 한동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어느것이나 다 훌륭하다.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할뿐 아니라 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백두대지의 천연수림과 잘 어울리면서도 현대미가 느껴지는 각이한 색갈의 지붕들과 외장재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어느것이나 손색이 없다.

흰눈덮인 설경도 절경이지만 은은한 눈발속에 아름다운 가로등과 정원등, 불장식들이 저 하늘의 별무리마냥 빛을 뿌리는 야경은 또 얼마나 이채로운가.

한두 마을도 아닌 삼지연시전체가 하나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 인민의 리상촌으로 화하였고 어디 가나 문명의 보금자

리들이 바다처럼 펼쳐졌다.

하늘아래 첫동네인 삼지연시의 끝자락 맨 마지막마을에도 불과 몇세대의 평범한 산골마을사람들을 위해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집들이 일떠섰다.

해빛도 잘 스며들지 못하는 깊은 산골이건만 고마운 당의 사랑은 외진 산간오지까지 속속들이 미친다고 감격에 울고웃는 사람들, 지금처럼 나라가 힘든 때에 평범한 산골사람들을 위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새집들을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니 밤이 와도 잠들수 없어 누구나 격정속에 눈굽적신다.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여기 삼지연시에 온 세상이 부러워할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온 나라를 문명의 별천지로 더욱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해 그토록 마음 기울여오신 원수님의 불멸의 헌신이 있어 이 땅에 거창한 인민의 리상촌이 솟아났고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퍼져갈 지방건설의 귀중한 본보기, 불씨가 마련되였다.

주체110(2021)년 11월중순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흥리를 돌아보시면서 삼지연시안의 농장마을들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렸는데 농장원들이 다 좋아한다니 합격되였다고 할수 있다고, 삼지연시에 새로 꾸린 농장마을들은 앞으로 우리가 꾸리자고 하는 전국의 농촌마을들의 본보기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삼지연시는 감자농사에서도 농촌진흥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중흥리소재지마을은 본보기적인 농촌마을이며 농촌진흥의 표본이라고, 이만한 수준의 농촌마을을 삼지연시에만 꾸리자는것이 아니라 전국각지에 다 꾸리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삼지연시에 펼쳐진 희한한 황홀경.

이것은 진정 머지않아 온 나라에 수풀처럼 펼쳐지게 될 사회주의문명국의 눈부신 선경이며 지방건설의 빛나는 표대이다.

나라의 면모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변모시키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인 지방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수도의 곳곳에 인민의 리상거리, 현대적인 문명거리들을 일떠세워주시던 그때 벌써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실 지방건설발전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원수님께서는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에서부터 사회주의문명의 려명을 불러오시기 위해 삼지연시건설을 선포하시였다.

그후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삼지연땅에 세상이 부러워할 인민의 리상도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그이께서는 삼지연시를 찾고 또 찾으시였다.

주체102(2013)년 11월과 주체105(2016)년 11월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 차례 삼지연시를 찾으신데 이어 주체106(2017)년 12월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삼지연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주체107(2018)년에는 7월 한달에만도 3차에 걸쳐 찾아주신데 이어 8월과 10월에 찾아오시여 삼지연시를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나라의 산간지대 군들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 나날에 삼지연시건설에서 나타난 일부 편향과 부족점들도 바로잡아주시며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북방의 이 건설전투는 삼지연시 하나만 잘 꾸리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들을 모두 문명한 군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목표를 세우는데서 경험을 창조하고 본보기를 만들고자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지금 우리 나라의 군들은 각이한 자연지리적특성과 경제적조건으로 하여 등차가 심하게 발전하였는데 먼저 표준군들을 잘 꾸려 전형을 창조하여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들의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해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을 손색없이 꾸리는것이 삼지연시꾸리기에서 기본이라는데 대하여서와 삼지연시인민들이 희한한 살림집에서 살게 하자는것이 삼지연시꾸리기를

하는 목적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기도 하시였다.

삼복의 폭염과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떤 해에는 무려 수차례나 찾고찾으며 삼지연땅을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문명의 보금자리들이 숲을 이룬 리상촌으로 훌륭하게 꾸려주시려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삼지연시는 나날이 변모되여 갔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삼지연시는 건물들이 기단층으로 련결되고 소층과 다층이 조화롭게 결합되였을뿐 아니라 건물들의 립면도 모두 예술화된 당의 건축미학사상에도 맞고 산간지대특성에도 맞는 그야말로 사회주의문명이 응집된 특색있는 산간지대도시형성의 본보기로 태여날수 있었다.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이 잘 살아나고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문명의 축도,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마련된 삼지연시의 전변된 모습이다.

《전후에 삼지연은 어설픈 귀틀집들만 있는 궁벽한 산촌이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흔적을 밀어버리고 난생처음 보는 아빠트거리가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에는 삼지연이 다시

한번 달라졌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 희한해서 꿈을 꾸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삼지연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별천지입니다.》

이것은 삼지연시에 태를 묻고 살아온다는 한 로인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오늘 사치와 향락의 불빛이 눈아프게 번뜩이는 자본주의 번화가의 한복판에서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생활의 보금자리를 그려보며 눈물과 한숨을 지을 때 그처럼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인민의 보금자리를 더욱 희한하게 품들여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에 사는 인민이라면 누구나 문명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며 만복을 누려야 한다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온 나라를 문명의 별천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계속 펼쳐가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초 삼지연시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꾸리기는 인민들이 보다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데서 하나의 새로운 혁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다른 지방 사람들이 본보기로 꾸려진 삼지연시를 자기 군을 일떠세우기 위한 불씨, 봉화로 삼고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건설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사회주의리상향인 삼지연시를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본보기로 하여 지방도시건설의 불바람을 일으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지방건설에서의 일대 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새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지금도 신의주시와 강계시, 만포시를 비롯한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어주신 휘황한 설계도에 따라 지방건설이 힘차게 벌어져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시간이 다르게 우뚝우뚝 일떠서고있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사랑속에 이 땅에 산악협곡도시가 일떠서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도 꽃펴났다.

주체109(2020)년 10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입은 검덕의 광부들이 걱정되시여 림시복구된 위험한 협곡철길을 달려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였다.

건설현장으로 가시던 령길에서 산비탈면에 들쑹날쑹 비좁게 들어앉아있는 단층살림집들을 보시고 못내 걱정하시던 원수님께서는 지금 자연재해가 들이닥쳐 하늘이 낡은 집들을 무너뜨려야만 따라가면서 새 살림집들을 짓고있는데 지방건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얼마전에도 말하였지만 지방건설목표를 계획적으로 세우고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고 하시면서 대흥과 검덕, 룡양의 세기적인 락후를 싹 털어버리고 새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우리 나라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피해복구건설은 1단계로 정하고 80일전투기간 총력을 다하여 질적으로 완공하며 2단계로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할 5개년계획기간에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만 5 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고 하시며 검덕지구건설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

순간 일군들은 어리둥절했다. 그 어느 사전에도 없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멋진 이름이였던것이다.

얼마나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면 인민이 살게 될 도시이름도 이처럼 정담아 멋쟁이로 달아주셨겠는가.

인민들에게 제일 훌륭하고 문명한 보금자리를 안겨줄수만 있다면 세상에 없는 산악협곡도시도 만들어내고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인민의 령도자만이 안겨주실수 있는 부름이

고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이윽고 설계부문에서 80일전투기간 검덕지구건설총계획안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설계에 앞서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고 자연재해에도 걱정없고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부지를 바로 정하며 인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여 살림집의 외부와 내부형성안을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나서 검덕지구에 단층, 소층, 다층, 고층의 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자고 하시며 지방군, 산골군들에는 올망졸망한 단층살림집들만 밀집시켜 건설하는 낡은 틀을 깨고 검덕지구를 완전히 일신시켜 지방건설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 혁명을 창조하도록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방건설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삼지연시 다음가는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

정녕 그이의 심중에는 오직 하나 온 나라 인민들에게 삼지연시와 같은 훌륭하고 문명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일념뿐이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타산도, 순간의 주저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해 검덕지구에는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서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단층살림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앉아있던 협곡들마다에 희한하고 황홀한 단층, 소층, 다층, 고층, 다

락식살림집들이 조화를 이루며 즐비하게 솟아나 문명의 별천지가 펼쳐졌고 집집마다에서는 모든것이 그쯘히 갖추어져 집주인들을 어서 오라 불렀다.

주체110(2021)년 12월 31일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려지고있는 검덕지구에서는 새해를 맞으며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도 크지만 온 나라의 축복속에 한날한시에 현대적이며 희한한 살림집들을 받아안고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하는 검덕지구 인민들.

꿈같은 현실에 저저마다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한없이 흘러넘쳤다.

《TV화면을 통해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질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검덕로동계급의 가정들에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시고 도시 부럽지 않은 훌륭한 새집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산악협곡도시에서 살게 될 검덕지구 인민들의 심장의 웨침이라고만 하랴.

온 나라에 문명의 별천지를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

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은 륙지와 멀리 떨어진 이 나라의 크고작은 섬들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장재도와 월내도, 무도…

그 옛날 지도에조차 표기되여있지 않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이름없던 이 섬들이 사람들의 기억속에 새겨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사나운 파도길을 헤치시며 섬초소들을 찾아주신 그날부터였다.

이렇게 찾아오시여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며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을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크게 관심하신 문제는 군인들과 군관가족들의 생활조건보장문제였다.

군인들의 병실과 군관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군관가족들이 외진 섬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게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실것을 결심하시고 장재도와 월내도, 무도를 비롯한 섬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랑의 작전을 펼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소동과 침략전쟁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극도로 조성된 시기였다.

더우기 서남해상수역은 군사분계선을 가까이하고있어 언제 어느 순간에 전쟁의 불꽃이 튈지 모르는 아주 예민하고 위

험한 곳이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이러한 곳에 전투부대나 무기, 탄약이 아닌 건설력량과 자재들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섬들이 생겨 일찌기 볼수 없었던 대건설전역이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인민사랑에 의해 불과 몇달만에 섬들마다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새 문명의 보금자리가 펼쳐지고 있던 주체102(2013)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장재도를 찾아주시였다.

격정에 넘쳐있는 지휘관의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동안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병영구내와 살림집들의 전경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마치 한폭의 명화와도 같이 훌륭하게 꾸려진 섬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새로 꾸린 장재도방어대가 희한하다고 하시면서 장재도가 몇달사이에 완전히 때벗이를 하였다고, 이런것을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한다고, 장재도와 같은 섬에는 천지개벽이라는 말보다 천도개벽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교양실과 사무실, 병실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군관살림집앞에 이르신 원수님께서는 새 살림집들이 멋있다고, 건물형식도 좋고 시공도 잘하였다고 하시며 살림집구역이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며 어느한 군관

의 집을 찾으시였다.

그 집으로 말하면 그이께서 지난 3월 섬에 오셨을 때 한 어린이의 돌생일을 축하해주시며 몸소 들리시였던 집이였다.

살림방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래 집은 볼품이 없었다고, 방에 온전한 가구도 없었고 TV도 습기로 인한 고장으로 보지 못하고있었다는데 대하여 상기하시였다.

정말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가족살림을 하는 군관이 몇이나 되는가를 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정항명어린이의 집에 가보자고 하시며 앞서 걸음을 옮기시였었다.

잠시후 집앞에 이르시여 주인내외와 허물없이 인사를 나누시고 부엌을 거쳐 방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방안을 둘러보시며 방이 좁다고, 군관살림집을 번듯하게 지어주어야 할것 같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방안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다가 창문쪽에 놓여있는 TV를 가리키시며 안주인에게 켜보라고 이르시였다.

일순 당황해하던 그가 습기때문에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봄철인데도 방안에 습기가 많은 모양이구만라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이어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방바닥을 짚어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천정을 올려다보시며 천정이 너무 낮다고 무겁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때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은 친부모보다도 더 극진하고 다심한 사랑을 기울이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집주인들은 물론 일군들도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

그날에 받아안았던 격정이 되살아나 모두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위생실을 비롯하여 내부를 나무랄데가 없이 잘 꾸렸다고, 액정TV와 랭동기, 침대와 책상, 옷장과 이불장, 찬장과 그릇들을 비롯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들과 부엌세간들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것을 보니 자신의 마음이 흐뭇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식들이 쓰고살 훌륭한 새집을 마련해준 친부모의 심정인듯 못내 기뻐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한 일군이 다른 집들도 다 꼭같이 꾸렸다고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잘하였다고, 이만하면 맨몸으로 들어와도 되겠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친어버이사랑으로 장재도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도에 이어 다음날에는 월내도에도 들리시여 천도개벽의 전설을 수놓아가시였다.

어찌 장재도나 월내도, 무도뿐이랴.

이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섬들에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

과 환경, 문명의 보금자리들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로고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정녕 온 나라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켜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인민의 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인민사랑속에 이 땅에는 지방건설의 새 력사와 더불어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갈것이다.

❀ 일터마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주체111(2022)년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에서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격동적인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에 련포온실농장건설예정지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2월에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소식과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소식 등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설대전소식들이 연해연방 울려퍼졌다.

새해벽두부터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건설작전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은 또 얼마나 천만가슴을 격정으로 높뛰게 하였던가.

련포온실농장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온실농장으로서 2년전에 준공한 중평남새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두배에 달하고 남새생산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환경관리, 작업공정의 자동화측면에서도 훨씬 발전된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1 000여세대를 건설하고 학교와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을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들도 특색있게 일떠세워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옹근 하나의 농장지구를 새로 형성하게 됩니다.

련포온실농장을 수만t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로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으로,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입니다. …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새겨보면 볼수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려정을 되새겨보게 하는 부름이다.

새 공장들과 현대적인 농장들을 일떠세울 때면 언제나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부터 멋들어지게 지어주어 훌륭한 로동

조건과 함께 문명한 생활조건을 갖추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오늘은 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제일 큰 현대적인 대규모온실농장건설구상을 펼치시며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훌륭한 살림집주택지구를 마련해주도록 하신 그이의 뜨거운 사랑속에 인민들 누구나 정답게 불러본다.

더 좋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인민들 누구나 문명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이 땅에 일떠선 현대적인 온실농장들마다에도 수많은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주체103(2014)년 6월 어느날.

한낮의 무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에 게시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사판을 보시며 이 농장의 남새온실이 요란하다고, 참으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려고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고 하시며 감회깊은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더듬어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21세기 온실남새생산의 본보기농장으로, 표준농장으로 잘 꾸려놓고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

게 말씀하시며 설계와 자재보장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해당 책임일군에게 콩크리트바닥밖에 없는데서 생활하는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온실들에 생울타리도 조성하고 농장마을도 본보기로 꾸리라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남새온실과 마을, 탁아소, 유치원, 학교를 비롯한 건물들을 21세기의 표본이 될수 있게 잘 꾸려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로고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그후 장천땅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온도와 습도, 해비침도, 이산화탄소함유량을 감시하는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가 설치된 수백동의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이 바둑무늬처럼 끝간데 없이 펼쳐진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또한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 않게 꾸려진 문화회관이며 편의봉사시설들, 배구장과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양어장까지 있는 공원들,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된 록색형단층, 소층농촌문화주택들, 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 옹근 하나의 농촌문화주택구가 훌륭히 꾸려졌다.

하나의 도시구획을 방불케 하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말그대로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되였다.

하기에 주체104(2015)년 6월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변모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아주신 원수님께서는 장천지구의 희한한 전경을 바라보시며 장천원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정말 멋있다고, 마치 한폭의 그림같다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날 앞으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꾸린것처럼 평양시 주변농장들을 잘 꾸려야 하겠다고 일군들에게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농장 농장원들이 입사한다고 하는데 입사하기 전에 자신께서 한번 나와봐야 하지 않는가고, 그래서 자신께서 오늘 나왔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이어 문화회관에 들리시여 농장원들이 문화회관을 너무 황홀하게 꾸리였기때문에 나들이옷을 입지 않고서는 들어서기 주저한다는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으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그럴만도 하다고, 문화회관이 멋있게 꾸려졌으니 이곳 농장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고, 농장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회관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하게 되면 도시사람들 못지 않게 문명해지고 일도 더 잘하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도시 부럽지 않게 훌륭히 꾸려진 문화농촌에서 흥겹게 일

하며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갈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존안에는 시종 기쁨이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관을 나서시면서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 농촌마을들을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처럼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농장원들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저절로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정녕 이 말씀에는 모든 농촌들을 희한하게 전변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드팀없는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속에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솟아난 곳이 어찌 장천땅뿐이랴.

북변의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인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에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평남새온실농장건설을 처음으로 발기하신것은 주체107(2018)년 7월중순이였다.

소문도 없이 당시 중평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에 직접 와서 보니 비행장구획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것을 보고 광활한 옥토라고 한다고, 이런 광활한 옥

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자리이라고, 여기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희한할것이라고, 남새온실농장을 꾸릴수 있는 면적이 100정보 이상은 될것같다고 하시며 이만한 면적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은 자신께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해당 단위에서 강력한 설계집단을 내보내여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의 남새온실농장건설이므로 인민군대가 불이 번쩍나게 해제껴야 한다고, 당에서 함경북도인민들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마음먹고 마련해주는 농장인것만큼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농장원들의 주택지구와 문화후생시설도 도시 부럽지 않게 현대적으로 문명하게 지어주어 농장마을을 그야말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하게 꾸려주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다음해 10월중순 또다시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

설장을 찾으시여 공사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마을전경을 가리키시며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전형으로 당당히 내세울수 있다고, 오늘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마을이 태여났다고 하시며 시름이 풀리신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수백세대의 특색있는 소층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편의봉사시설 등이 즐비하게 들어선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지난 시기의 문화농촌마을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있었다.

우선 건물들의 모양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것이다. 50여동의 소층살림집만 보아도 크게 네가지 형에 20여가지 형태로 건설되였는데 현관이 한개 또는 두개이상인것, 베란다가 앞으로 돌출되였거나 안으로 들어간것 등 여러가지이다.

또한 다른 특징은 건물배치가 집약화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것이다. 지난 시기의 농촌마을들은 대체로 같은 모양의 살림집들을 규모있게 렬을 맞추어 배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곳 주택지구는 살림집들의 밀집도를 높이면서도 건물배치가 다양하게 되여있다. 각이한 모양새를 가진 크고작은 소층살림집들이 서로 마주서기도 하고 등지고있기도 하며 사선으로 잇달아 배치되기도 하였다. 하여 크지 않은 면적에 수십동의 건물이 들어앉았지만 실지 마을에 들어서면 답답한감이 없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특징은 또한 공원화, 원림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농촌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완전히 가셔주고있는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기와 전혀 다른 농촌마을의 본보기가 태여날수 있은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적지 않은 농장들에는 농업생산면적안에 개별적인 살림집들과 마을들이 배겨있어 무질서하다고, 농장마을을 이렇게 한곳에 몰아 건설하고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을 갈라놓아야 토지리용률을 높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온실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에 우리는 단순히 온실만 건설한것이 아니라 농촌건설의 시범을 창조하였다고, 앞으로 모든 도들에 이런 대규모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면 남새문제를 적지 않게 풀수 있을뿐 아니라 농촌마을의 면모도 일신시킬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단순히 몇몇 온실농장만이 아닌 모든 도, 시, 군들에 온실들을 건설하여 인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남새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중평남새온실농장은 1년 남짓

한 기간에 굴지의 대규모남새온실농장으로 완공될수 있었다.

2019년 12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조업식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새온실농장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지리적으로 멀고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어 떠나실 시간은 퍼그나 흘렀건만 그이께서는 아무래도 종업원들이 살게 될 살림집을 보아야 마음놓겠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안겨줄 새집을 찾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세심히 마음쓰시며 앞으로 농장마을은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수준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수도에 새 거리가 솟아나는것도 기쁘지만 지방인민들이 이렇게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도시 부럽지 않는 생활을 누리게 되였을 때가 더욱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그 재배업을 발전시키고있는 나라는 많아도 인민들의 남새문제해결을 위해 이렇듯 군사기지까지 통채로 내여주면서 남새온실을 건설하도록 하고 흥겹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문명의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준 례는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정을 지니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만이 내리실수 있는 중대결단이였고 참다운 인민의 나

라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인민사랑의 전설이였다.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은정속에 올해에는 또 련포지구에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규모온실농장이 건설되고 인민의 웃음소리 꽃펴날 행복의 보금자리가 우뚝 솟아나게 될것이다.

머지않아 이 땅우에 또 하나의 소중한 인민의 재부,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이 마련되게 되였으니 이 얼마나 가슴벅찬 현실인가.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로동조건과 함께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전설은 사회주의전야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이 일하는 공장들에도 력력히 깃들어있다.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다.

마중나온 공장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그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는 문제에 대하여 료해하시다가 문득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시여 생산문제에 앞서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부터 꺼내시며 걱정하시는 바람에 공장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그이께서 종업원들의 살림집실태에 대하여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알고계시는것이였다.

그들의 심중을 깊이 헤아리신듯 그이께서는 우리가 옷감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천생산의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이 공장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경제사업에 좀 지장을 받더라도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공장합숙과 살림집건설에 인민군대를 동원하자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제품견본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견본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11년 5월 공장에 오시여 보아주신 합숙과 문화회관전경도도 있는데 아직 합숙과 문화회관을 건설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생산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로동자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주는것이라고 또다시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나서 새로 건설할 공장합숙의 건평과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의 소요량도 알아보시고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종업원들의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문제에 대해서도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느덧 오랜 시간이 흘러 그이께서 공장을 떠나려고 하실 때였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시는듯 선뜻 차에 오르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곳 더 볼데가 있다고 하시면서 합숙을 건설할 곳에 가보아야 정확한 표상을 가지고 합숙건설

과 관련한 사업을 포치할수 있다고, 거기에 가보지 않고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공장일군들은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도그럴것이 그때 합숙부지로 자리잡았던 공사장은 이미 있던 낡은 건물이나 해체한채 이태째 건설을 전개하지 못하고있어 여기저기 잡풀이 무성하고 길 아닌 길마저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어 그야말로 한산하기 그지없었던것이다.

허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만류할새도 없이 먼저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슴없이 헤쳐가시는 그이의 사랑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음을 다시금 심장속에 새기며 일군들도 그이를 따라섰다.

그렇게 합숙부지에 이르신 원수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주변을 둘러보시며 합숙자리로는 여기가 좋을것같다고 하시면서 건설의 단계별목표를 정해주시고 힘있는 건설력량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고 공장을 떠나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방직공들의 합숙이 번듯하게 솟아났다.

록음이 짙어가던 2014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넓은 부지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합숙은 침실과 식당, 목욕탕, 미용실, 상점, 치료실, 도서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

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그야말로 로동자들의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 로동자호텔이였다.

처녀들이 좋아하는 연분홍색과 미색이 조화를 이룬 복도며 매 층의 홀마다에 놓여있는 대형액정TV, 화면반주음악기재들, 정갈하게 꾸려진 호실들로 아늑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로동자합숙실내는 또 그야말로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로동자합숙의 1호동 현관출입문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홀에 들어서시자마자 건물의 층고를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자신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건설을 시작할 때 층고를 녀성로동자들의 키에 알맞춤하게 좀 낮추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 잘했다고, 내부벽도 녀성들의 취미에 맞게 은은하면서도 온화한 색갈로 잘 마감하였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사실 그 색갈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것이였다.

1층의 어느한 호실에 들어서시여서는 전실에 걸린 거울을 보시며 처녀들이 외출을 하거나 총각들을 만나러 갈 때 옷맵시를 보면서 좋아하겠다고 웃음속에 말씀하시였고 방안벽장을 열어보시고는 옷을 걸어놓는 칸은 길이가 짧아 치마저고리를 걸어놓으면 그것이 접힐것이라고 하시며 녀성들의 옷을 걸어놓는 칸은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정겹게 이르신 원수님이시였다.

정녕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은 세간난 딸자식의 집을 찾은 친어머니보다 더 세심하고 뜨거운 정으로 차고넘치여 그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런 사랑의 새 전설이 수놓아졌다.

호실안에 있는 세면장과 위생실을 일일이 살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편리하게 잘 꾸렸다고, 이 합숙은 로동자합숙이 아니라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이라고 하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품들여 지어준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

진정 그것은 인민을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에 떠받들려 태여난 행복의 결정체이다.

목욕탕과 도서실, 야외휴식터에도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원수님께서는 합숙식당에 가시여 식사실이 정말 멋있다고, 이 식당에서 연회를 하여도 되겠다고 하시며 한 일군에게 5.1절을 맞으며 나와서 연설도 해주고 로동자들을 축하해주어야 하겠다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하여 5월 1일 저녁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친 5.1절경축 로동자연회가 새로 꾸려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식당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다.

로동자들의 생활문제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세상

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을 지어주시고도 그들을 위한 사랑의 축하연까지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온 나라 인민들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령도자께서 평범한 로동자들을 먼저 축하해주시며 사랑의 연회상까지 차려주시는 나라는 오직 인민사랑의 화원이 꽃펴나는 공화국밖에 없다.

어찌 김정숙평양방직공장뿐이랴.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부러워한다는것을 아시고는 힘있는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여 훌륭한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이처럼 훌륭한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을 마련해주시고도 완공의 날에 몸소 찾아오시여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신 인민의 령도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속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훌륭하고 문화적인 로동자합숙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로동자들의 생활은 나날이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합숙과 현대화된 일터마다에서 흥겹게 일하며 생활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인민의 크나큰 행복상이다.

❀ 세상에 없는 멋쟁이궁전들로

오늘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힘찬 진군속에 가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문명의 보금자리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있다.

그 모든 보금자리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손꼽히는 멋쟁이궁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선참으로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을 꼽을것이다.

공기좋고 풍치수려한 명당자리들마다에 훌륭히 일떠선 멋쟁이궁전들.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대통령이나 대부호의 자식들밖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의 주인공들이 다름아닌 부모없는 원아들이라고 하면 아마 세상사람들은 곧이듣지 않을것이다.

하기에 2016년초 《모성의 눈으로 본 조선》이라는 편집물을 만들어 인터네트홈페지 《조선의 소리》에 실었던 한 아일랜드녀성은 조선방문소감에 대하여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지난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서방과는 너무도 판이한 조선의 풍경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였더니 안내자는 다음

날 일정을 변경시켜 지방의 어느한 육아원, 애육원에 나를 데리고 가는것이였다.

그 육아원, 애육원이 얼마나 멋있고 거기에서 원아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는가에 대하여 한두마디 글로는 도저히 그대로 그려낼수가 없다.

부모없는 아이들 같지 않게 구김살없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돌보는 교양원들의 성실한 태도, 현대적인 보육교양시설들…

눈앞에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을 놓고 혹시 선전용으로, 시범적으로 꾸린 육아원, 애육원이 아닐가 하고 생각했으나 인차 그 속단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곳에서든 제일 좋은 집에 가보면 그곳은 틀림없이 육아원, 애육원이다.>라고 육아원 원장이 설명해주었기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한 외국인녀성의 진정만이라고 하랴.

예로부터 설음중의 가장 큰 설음은 고아들의 설음이라고 하였다. 하여 고아라고 하면 고독과 설음, 불행과 방랑의 대명사로 불리워왔고 인간세상에서 제일 불우한 삶은 부모없는 고아들의 운명으로 치부되여왔다.

하다면 이런 운명을 지닌 불쌍한 고아들이 공화국에선 어떻게 되여 제일 좋은 보금자리에서 살며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문명하고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사실자료가 있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20여개의 육아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궁전, 훌륭한 배움터로 솟아난데 이어 2017년에는 10여개의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일떠섰다.

불과 몇해사이에 전국의 도, 직할시들의 명당자리마다에 로동당시대의 건축술을 자랑하며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

공원과 놀이터, 생활장소 등 모든것이 아이들의 지능계발과 도덕교양에 실지로 이바지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육아원과 애육원들이며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육환경과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교사와 현대적인 기숙사, 야외체육장 등이 최상의 수준에서 일식으로 마련된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은 보면볼수록 하나같이 멋쟁이들이다.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곳곳에 이런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배움터들이 훌륭하게 일떠선데는 부모없는 아이들도 나라의 역군들로 어엿하게 키워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하고도 웅심깊은 사랑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주체103(2014)년 2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온밤 잠을 못이루시다가 아침일찍 평양시의 애육원과 육아원(당시)을 찾아주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양시의 애육원과 육아원은 건물도 그리

크지 않았고 명절날 시나 구역일군들과 몇몇 사람들이 찾아 오는것이 고작이여서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던 이곳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실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목메여 정중히 인사드리는 애육원일군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평양애육원의 실태가 실지 어떠한가 하는것을 알아보러 왔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정깊은 말씀에 애육원일군은 그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층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방안에서 뛰놀던 원아들이 《아버지!》 하며 엎어질듯 달려와 서로마다 그이 품에 안기겠다고 싱갱이질을 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느한 아이라도 빠질세라 그들의 머리며 볼을 쓸어주고 한품에 꼭 안아도 주시며 원아들을 보니 몸이 하나같이 오동오동하고 건강상태가 아주 좋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원아들의 노래도 즐겁게 들어주신 원수님께서는 노래를 마치고 맨 먼저 달려온 원아를 한품에 안으시며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원아들에게 부모의 정을 주어 그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항상 밝은 웃음속에

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잘 키워야 한다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이며 미래의 역군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보육 및 교양조건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생활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비롯한 모든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을 꾸려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오랜 시간 애육원에 이어 육아원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원아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다고, 앞으로 원아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지식인들과 훌륭한 군인들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꾸려주려고 하는것만큼 해당 일군들이 현지에 가보고 육아원과 애육원을 어디에 꾸리는것이 좋겠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잘 꾸려놓고 거기에 옮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몇해안에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을 일신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동행한 한 일군의 머리속에는 그날 먼동이 트기 전 이른새벽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사연이 방불히 떠올랐다.

아직도 삼라만상이 잠들고있던 이른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오시였다.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그에게 오히려 새벽에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지금 애육원과 육아원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생각하던중이라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온 나라 대가정의 행복을 위해, 원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한밤을 지새우시는 그이의 로고가 안겨와 그 일군은 눈굽이 쩌릿이 젖어들었었다.

그 일군에게는 문득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못잊을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졌다.

언제인가 어느한 단위에서 명절을 맞으며 일군들에게 노루고기를 비롯한 식료품들을 공급하려고 한다는것을 아시고는 즉시 그 전량을 남포시의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에 보내주도록 하신 이야기며 도안의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을 잘 돌보아주고있는 황해북도당 책임일군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이야기…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몸소 애육원과 육아원에 찾아오시여 원아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시면서 그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니 원아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사랑에는 끝이 없으시였다.

그후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보

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바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해만졌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일떠서는 곳은 정말로 명당자리라고 하시며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에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려는것은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친어버이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만사람들의 부러움속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주체103(2014)년 10월말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훌륭히 꾸려졌으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던 문제가 또 하나 풀렸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치좋은 명당자리에 원아들을 위한 멋있는 새집을 일떠세운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고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이날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들에 육아원과 애육원을 건설하고있는데 그것은 자랑이나 하고 선전이나 하자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애육원과 육아원을 건설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부모없는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기 위해서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부모잃은 아이들일수록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한점의 그늘이 있을세라 뜨거운 혈연의 정을 부어주시는 원수님의 사랑이 있어 이 땅에서는 원아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들이 도처에 일떠서게 되였다.

어찌 육아원, 애육원뿐이랴.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는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간직하시고 온 나라의 명당자리에 육아원, 애육원과 함께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사업을 직접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몸소 학원형성안을 여러 차례 지도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이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몇년사이에 멋쟁이학원들이 수많이 늘어났다.

2016년 7월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학원일군은 우리 학원에 많은 일군들이 나와보는데 모두가 원수님의 사랑속에 이제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세상이 되였다고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올렸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세상!

정말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무랍없이 올리는 그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전국도처에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니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세상이 되였다고 말한다는데 원아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시며 원아들은 모두 당의 아들딸이라고, 나는 아들딸부자가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였으니 하늘의 별을 따온것같이 기쁘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며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였다고 그토록 기뻐하시였다.

원아들에게 멋쟁이궁전, 멋쟁이학원을 안겨주실 때면 하늘의 별을 따온것같다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원일군에게 최근 당에서

원아들을 잘 키우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의 보육,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킨것은 우리가 지난 3～4년동안에 이룩한 성과들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그늘없이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흔히 한집안의 화목과 번성은 자식들의 얼굴에 비끼고 나라의 면모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낀다고 하였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그마한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표현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명랑한 모습으로 뛰놀게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설음, 부모없는 설음을 안고있는 고아들의 얼굴에 비낀 그늘은 자연의 모든 만물을 뜨거운 열과 빛으로 소생시킨다는 저 하늘의 태양도 가셔주지 못하였다.

허나 한없이 따사롭고 자애로운 열과 정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이 있어 공화국의 원아들은 누구나 멋쟁이보금자리의 주인들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들로 무럭무럭 자라고있는것이다.

세상에 제일 좋은 멋쟁이보금자리에 안겨 복된 삶을 누려가는것은 비단 부모없는 아이들만이 아니였다.

주체104(2015)년 8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어제는 부모없는 원아들이 궁전같은 새집으로 이사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일떠선 평양양로원에 년로자들이 이사하는 실로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진 것이다.

민족의 향취를 풍기는 합각지붕이며 침실과 식사실, 도서실, 운동실, 치료실, 내정과 수경온실을 비롯하여 로인들의 건강장수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평양양로원.

온 나라의 관심속에, 만사람의 축복속에 준공테프를 끊는 보양생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저마다 눈시울을 적셨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내세워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제일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그 헌신의 만단사연이 가슴마다 미쳐왔던것이다.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도 늘 돌볼 사람이 없는 원아들과 로인들 생각으로 언제나 마음을 못놓으시며 온갖 육친의 사랑과 정을 다 기울여오신 원수님께서 양로원의 터전을 잡아주신 사연만 해도 얼마나 가슴뜨거운가.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몸소 육아원, 애

육원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사업을 이끌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4년 6월 어느날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다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걱정없이 생활하게 하려고 한다고, 양로원은 위치와 수용능력을 잘 타산하여 설계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동쪽을 가리키시며 저기에다 양로원을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따뜻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공사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려는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일군들은 저으기 놀라며 그이께서 가리키신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야말로 아늑한 보금자리가 어서 들어앉길 기다리고있는듯한 명당자리였다.

더우기 원아들의 궁전과 나란히 있어 언제나 즐겁게 오가면서 혈육의 정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 있게 되니 양로원위치로서는 정말 안성맞춤이였다.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육아원, 애육원과 양로원을 잘 꾸려주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을 잘 돌봐주어 그것이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렇게 마련된 명당자리에 년로자들의 보금자리인 양로원건설이 시작되였다.

그후 힘있는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여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신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3월 양로원건설현장을 찾아주시였다.

공사과정을 일일이 료해하시며 건설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평양양로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양로원으로 잘 꾸리고 양로원보양생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당의 인민적시책이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 도에 육아원, 애육원들을 건설하는데 양로원, 양생원, 장애자, 영예군인들을 위한 보양소들도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년로자들을 잘 돌봐주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의 한품에 안아 외로움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어버이의 사려깊은 정이 맥맥히 흐르는 그이의 말씀을 후더운 가슴속에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책임감을 더 깊이 깨달았다.

이날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로원을 건설한 다음 지방의 양로원들도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양로원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양로원형성안에 내부마감을 대형타일과 유리들을 쓰는것으로 되여있는것을 보시고 내부를 그렇게 하면 양로원들이 호텔이나 기관청사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양로원의 외부와 내부의 형식과 색갈, 무늬를 비롯한 건설의 모든 요소들에서 우리의 민족성이 잘 살아나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건설을 민족적특성이 잘 살아나게 꾸리는데서 민족적인 색갈과 무늬를 잘 살리는것도 중요하다고 일깨워주시였고 양로원을 자기의 독특한 얼굴이 뚜렷이 나타나게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보양생들의 생활습성에 맞게 침실에 온돌방과 침대를 놓은 방을 잘 배합하여 꾸릴데 대한 문제, 온도보장대책문제, 세면장과 위생실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꾸릴데 대한 문제 등 년로자들의 심정을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며 사소한 요소들도 찾아내여 바로잡아주시였다.

보양생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할수 있게 터밭과 온실을 꾸려주고 산보길도 만들어줄데 대하여서와 식사실과 오락실을 특색있게 꾸리며 내정의 가운데부분에는 유리벽으로 된 회랑형식의 통로를 만들어줄데 대하여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그

대로 황홀한 양로원의 설계도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양로원을 민족성이 살아나면서 손색이 없게 꾸려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신 원수님께서는 리발실, 미용실, 세탁실, 운동치료실, 건강시설, 편의시설, 록화영화시청실 등을 꾸려주면 될것같은데 이제 무엇을 더 꾸려주는것이 좋겠는가 하는것은 토론해보고 합의되는데 따라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세심히 일깨워주시였다.

참으로 년로자들에게 안팎으로 황홀하고 희한한 멋쟁이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기울이시는 그이의 사랑은 다심하고 웅심깊으시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년로자들의 보금자리로부터 그들의 생활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직접 관심하고 그토록 세심히 돌보아주는 령도자가 과연 그 어디에 있던가.

년로자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진정에 가슴들먹이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여 이 땅우에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당부하시면서 평양양로원을 표본으로 잘 꾸리고 다른 지방의 양로원들도 그 수준으로 꾸릴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가르쳐주시였다.

온 나라를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으로 꾸려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보듬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세심

한 보살피심속에 마침내 평양양로원은 고상하고 우아한 민족적인 고전미와 현대미가 잘 어울려 청신함과 유순함을 다같이 안고있는 특색있는 건축물로 대동강반에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지방마다에도 이런 훌륭한 양로원들이 련이어 솟아나 년로자들은 인생의 황혼기를 젊음속에 보내게 되였다.

예로부터 부모없는 고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은 사회의 버림을 받으며 최하층에서 딩구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치부되여왔다.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도 이들의 생활은 더욱더 령락되여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는 무관계한 고독하고 설음많은 인생으로 짓밟혀왔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공화국에서는 제일 고독하고 설음많은 인생일수록 그이의 제일 가까이에서 온갖 참된 삶을 누리며 산다.

명당자리에 일떠선 훌륭한 보금자리들.

자본주의사회라면 향락과 사치로 포만해진 특권계층들의 호화별장들이 들어앉았을 그런 자리에 부모없는 아이들과 년로자들을 위한 멋쟁이보금자리들이 제일먼저 일떠서고 사회의 버림과 멸시를 받았을 불우한 인생들이 이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여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려가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참현실이다.

오늘도 이 멋쟁이궁전들마다에서는 복락을 누려가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목메여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이 노래소리는 그대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받은 인생으로 내세워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노래로, 그들이 심장으로 웨치는 로동당만세소리로 온 세상에 메아리치고있다.

❀ 인민사랑의 특대사변들을 수놓으시다

예로부터 불탄 뒤끝에는 남는것이 있어도 물간 뒤끝에는 남는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듯 자연재해중에서도 물로 인한 재난은 제일 혹심하고 참혹한 재앙으로서 인류에게 무서운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고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일상생활에서 흔히 《불》자앞에 《물》자를 놓아 사용하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오늘까지도 자연의 이 법칙은 의연히 존재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혈육과 정든 보금자리, 소중했던 모든것을 졸지에 잃고 한지에 나앉아 절망속에 몸부림치고있다.

허나 순간에 들이닥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실로 악몽과도

같은 재앙이건만 누구나 자연의 횡포한 광란앞에서도 비관을 모르고 살며 재난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받아안는 복받은 인생들로 되고있는것이 오늘 공화국의 재해지역마다에서 볼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인민의 믿음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문제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으로 인민들이 불행을 당할 때마다 인민사랑의 중대결단을 서슴없이 내리시며 이 땅우에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인민사랑의 특대사변들을 끝없이 수놓아오시였다.

나라의 정세가 벼랑끝으로 치닫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였던 주체104(2015)년 8월중순, 원쑤들의 최후의 단말마적발악으로 다치면 터질듯 팽팽한 공기가 흐르던 그 밤, 폭우와 대홍수라는 또 하나의 자연의 적이 공화국의 최북단 라선땅에 덮쳐들었다.

불과 몇시간동안에 동이로 물을 퍼붓듯 300㎜이상의 폭우가 사람들의 고막마저 먹먹하게 하며 무섭게 쏟아져내렸다.

어마어마한 물의 사태가 아득히 치솟은 산꼭대기들에서 거의 수직으로 쏟아져내리며 라선땅을 삼켜버렸다.

불의의 대홍수로 무려 수천여세대의 살림집이 무너지거나 심히 파괴되였으며 철도와 도로, 다리들, 수원지와 전력망들이 파괴되여 운행이 중지되고 전기와 물공급이 중단되는 등 라선시는 완전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총포성은 울리지 않고 포연은 날리지 않았지만 마치 한차례의 전쟁을 치르고난 뒤의 페허나 다름없이 된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상황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온 나라가 조국수호의 최후결사전에 떨쳐나선 격전전야에 이런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입었으니 정녕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참혹한 그 전경앞에서 라선시의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닥친 이 재난을 어떻게 대책해야 할지 안타까왔고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들의 머리우에 겹겹이 드리웠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이 비쳐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걱정되시여 깊은 밤 수천리 머나먼 곳에 있는 현지의 책임일군에게 장거리전화를 걸어오시였던것이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있는가. …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침식도 잊으신 그이의 음성은 괴로움과 아픔으로 무척 갈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피해복구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피해복구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하시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살림집을 당창건 70돐까지 건설하여 그들이 겨울에는 자기 집에서 안착된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밤 비통한 마음으로 피해입은 인민들을 한사람한사람 품어안으신 그이께서는 라선시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전선을 시급히 전개할 비장한 결단을 내리시였다.

당시 나라의 정세는 바야흐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하고 적들과의 무전무혈의 대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상처입은 자식,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걱정하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재난을 당한 라선시인민들을 늘 생각하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토론하도록 하는 특별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

를 조직하시였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 인민군군인들이 전선이 아니라 피해지역으로 시급히 총출동하고 건설력량이 도착하기 전에 건설자재들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건설자들을 기다리는 건설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희한한 화폭이 펼쳐졌다.

세계군력사에 전례를 모르는 인민사랑의 《전쟁》은 이렇게 그 장엄한 서막을 열었다.

삽시에 라선땅은 불꽃튀는 건설장, 인민을 위한 하나의 거창한 건설전역으로 화하였다.

현지에 도착하는 길로 자기들이 거처할 가설건물이 아니라 살림집축조에 필요한 블로크부터 찍어낸 인민군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열흘동안에 살림집블로크벽체쌓기를 완전히 끝내고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작업, 수천세대의 살림집보수도 동시에 내밀어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그이께서 요구하시는 높이에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건설대전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9월 머나먼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라선시피해복구전투

장을 찾으시였다.

선봉지구 백학동(당시)에 건설할 살림집형성안을 보아주시며 공사과제와 공사진척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한 둔덕에 이르시여 기적창조의 불바람속에 큰물피해의 흔적을 거의나 찾아볼수 없게 전변된 살림집건설장을 바라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며칠사이에 백학동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라선시의 수재민들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마음은 항상 피해복구전투장에 가있었는데 오늘 직접 현장에 와서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것을 보니 근심걱정이 다 사라지는것같다고, 당창건 70돐전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킬수 있겠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라선시피해복구를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충막콩크리트치기를 한지 며칠 안되여 양생이 되지 않아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살림집내부에도 들어가보시였다.

살림집면적을 알아보시고나서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을 돌아보니 내부설계가 그만하면 잘된것같다고, 공동살림방과 부부살림방, 부엌, 창고, 위생실을 배치하였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구조도 괜찮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원수님께서는 살림집앞마당에는 주민들이 남새를 심어먹을수 있게 터밭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친히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이날 점심식사마저 미루시며 가시는 곳마다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군인건설자들에게 당창건 70돐전으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냄으로써 10월의 하늘가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후 20여일만에 또다시 머나먼 라선땅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전번에 올 때에는 큰물피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새집을 지어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이 무거웠댔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매우 가볍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폭신한 담요와 이불을 덮고 옥백미로 지

은 밥에 돼지고기와 신선한 물고기까지 먹으며 안정된 생활을 누려온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얼마전에는 액정TV와 갖가지 내의류, 솜옷, 질좋은 그릇들과 수저, 위생용품까지 보내주시고도 또다시 이렇게 수천리를 한달음에 달려오시여 보살펴주시니 육친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뜨거울수 있으랴.

일군들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르는데 백학동살림집들에로 다시 시선을 옮기신 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신채 오래도록 마을을 바라보시였다.

지붕과 외장재색갈을 구획별로 서로 다르게 한 수백동의 1동2세대 단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살림집들사이로 도로들이 규모있게 나있어 백학산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잡은 살림집들은 마치도 학들이 떼를 지어 내려앉은듯하였다.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백학동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보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새집들을 받아안게 될 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백학산기슭의 새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집들이 본래집들보다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본래집보다 대상이 안되게 좋다고, 인민들이 훌륭한 새집을 받게 되여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격정을 터치며 새집들이를 하는 자기들에게 은정어린 선물까지 보내주시여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한다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바로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재난을 당한 재해지역 인민들이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받아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거듭거듭 만족해하시며 다심한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그이는 진정 피해지역 인민들뿐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주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들과 자연이 가져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의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사업을 단순히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기 수령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신성하고 숭고한 사업으로 내세우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주체105(2016)년 함북도의 북부지구 인민들이 큰물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세인을 놀래우는 중대결단과 특대사변으로 온 세계를 뒤흔들어놓으시였다.

이해 8월말—9월초 공화국의 북변 두만강일대에서는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폭우와 돌풍의 영향으로 두만강의 수위가 위험수위보다 2.5배나 높아져 두만강을 끼고있는 여러 시, 군들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였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한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에서는 수십여개의 소재지와 마을들, 살림집들이 침수파괴되였다. 수십만m에 달하는 도로와 철길, 다리들이 무참히 파괴되고 흙사태에 묻히였으며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져 수많은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였다.

참혹한 큰물피해는 200일전투로 들끓던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난관을 가져왔다. 큰물에 산이 뭉청깎이워 절벽이 되고 산사태에 거대한 골짜기가 통채로 메워져 오붓한 농촌마을들과 거리들, 기름진 논밭들이 자갈밭으로 변하였으며 동구길이 강줄기로 바뀌였다. 어쩔새없이 들이닥친 큰물과 돌풍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소중한 모든것을 깡그리 앗아갔다. 사랑하는 혈육과 정다운 이웃도, 집과 가산도, 정을 묻은 대지도…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의 통신, 방송들과 국제기구들은

당시의 형편에서 조선이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피해후과를 수습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었다.

한편 적대세력들은 마치 때를 만난듯이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악랄한 비방중상과 비렬한 방해책동을 서슴지 않았다.

적대세력들은 이번 큰물피해는 지난 라선피해때와는 대비가 안되는 최악의 재앙이기때문에 빠른 복구는 전혀 불가능할것이다, 더우기 려명거리건설에 이미 많은 힘을 소모한 북으로서는 심리적쇼크상태에 빠져있을것이라고 악담을 늘어놓으면서 그 무슨 《위기설》이라는것을 요란스레 떠들면서 공화국에서 북부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할수 없게 하려는 흉심으로부터 핵선제공격위협과 제재봉쇄책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였다.

세인의 예상과 억측, 우려가 엇갈린 전파가 우주공간에 쉴새없이 누비고있던 2016년 9월, 공화국에서는 그 모든것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발표된것이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 200일전투의 거세찬 불바람으로 전례없는 대승리를 마중해가고있던 격동의 시기에 자연의 광란이 몰아온 이 대재앙을 가시기 위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키고 재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킬 중대결단을 내리시였던것이다.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충성의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부대들이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급파되고 전당과 전체 인민, 인민군장병들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중대조치에 의하여 전개된 북부피해복구전투는 말그대로 사생결단의 치렬한 전쟁이였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수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복구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틀어쥐고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할 대상을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으로 규정하시였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강추위에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피해복구전투의 최우선적인 건설대상으로 정해주신 원수님께서는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이 큰 작전과 탁월한 령도밑에 벌어진 인민사수의 치렬한 대격전속에서 자연의 혹독한 전횡으로 한차례의 전쟁을 치른것처럼 파괴되였던 함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희한하게 솟아나는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였다.

억만금을 쏟아부어서라도 기어이 큰물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것이 원수님의 심중에 자리잡은 억척불변의 뜻이기에 라선지역보다 몇배나 큰 피해를 입었던 함북도 북부지역 인민들도 친어버이의 사랑과 은정이 구석구석마다에 깃들어있는 살림집은 물론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들 지어는 부식물과 땔감까지 매일이다싶이 련이어 받아안았다.

온 나라의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는 그대로 기적과 혁신을 낳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로동당시대의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기울이시며 세상에 없는 중대결단과 특대사변들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피해지역들마다에는 희한한 선경마을들이 펼쳐지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따뜻한 사랑의 봄빛이 흘러들었다.

인민을 한품에 안아 보듬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세계가 조선로동당의 고유한 기풍으로,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흉내조차 낼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2020년 8월초 은파군 대청리일대가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즉시 현지의 책임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당에서 대청리주민들이 큰물피해를 받았

다는것을 알고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살림집도 새로 지어주고 피해복구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주겠으니 대청리주민들이 신심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신심을 잃지 말고 안착되여 생활하라고 하였다는것을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꼭 전달해주어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절절하게 하신 그이의 말씀은 그대로 그 일군의 마음속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한 손길이였으며 불행을 당한 인민일수록 더 따뜻이 품어주는 숭고한 사랑이였다.

그로부터 몇시간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에서 은파까지 그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시였다.

큰물이 범람한 피해현장에 나오시여 험한 진창길을 밟아가시며 농장의 피해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당 일군에게 은파군 대청리 큰물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번에 큰물피해복구사업을 잘하여 화가 복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이 사업은 우리가 중시하고 힘을 넣어야 할 사업이라고, 인민들이 당한 불행에는 크고작은것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걱정없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의 눈앞에는 나라의 방

방곡곡에 솟아오른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들의 훌륭한 자태가 우렷이 비껴들었다.

이 땅에는 불행과 설음에 우는 사람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되며 설사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 당이 한시바삐 그 괴로움을 깨끗이 가셔주어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남다른 신조가 아니였던가. 하여 공화국에서는 고아라는 말이 영영 사라지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로인들이 자식있는 사람 부러운줄 모르며 재난을 당한 사람이 도리여 만복의 주인공이 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날에날마다 펼쳐지고 있는것이였다.

걱정없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뜨거운 심장을 지니셨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다음날에도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큰물피해현장을 찾으시였다.

현장에 오시여 농장일군들과 함께 오래동안 피해가 제일 혹심한 농장구역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마을들에 살림집들을 규모있고 깨끗하게 다시 잘 지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이의 자애로운 안광을 우러르는 농장일군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샘솟았다.

농장원들을 위하시는 그 마음이 끝이 없으신듯 그이께서는

살림집형식도 농장원들이 좋아하는대로 해주자고 하시며 살림집설계에 대한 심사를 일군들이 하지 말고 농장원들이 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 이처럼 피해지역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한 나라의 령도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현장을 거듭 찾으시고 농장원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며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신적이 있었던가.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전설이였다.

2020년에 아로새겨진 인민사랑의 전설이 어찌 대청리에만 깃들어있으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의 와중속에 살륙과 전쟁, 기아와 빈궁이 날로 휩쓰는 이 지구상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특대사변들이 빈번히 일어나군 한다. 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인민들을 위해 일어나는 특대사변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오직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는것을 가장 큰 중대사로 여기는 공화국에서만 인민을 위한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당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을 직접 무어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에 급파한 격동

적인 사변도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대조치에 의하여 펼쳐진 또 하나의 특대사변이였다.

2020년에 들어와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에 의해 여러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그것을 가시기 위한 긴장한 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때에 또다시 겹쳐든 태풍 9호에 의하여 9월초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도 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였다.

즉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지로 파견하시여 부문별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달음으로 함경남도 태풍피해지역으로 찾아가시였다.

인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리도 불같으시여 아직 큰물이 사품치는 은파군 대청리에 전설같은 헌신의 자욱을 남기신데 이어 또 태풍과 해일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 않고 이제 또다시 들이닥칠 태풍 10호가 시시각각 몰려오고있던 그 시각 험한 길을 헤쳐 제일먼저 함경남도의 피해지역으로 달려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태풍과 해일이 휩쓴 해안가의 험하디험한 돌서덜길을 밟으시며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신 그이께서는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시는 공개서한을 한자한자 써나

가시였다.

인민이 당하는 고통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한시도 지체하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하는 문제를 다름아닌 수도의 당원들에게 터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으신 그 심중.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

멀지 않아 성대히 진행되게 될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준비와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으로 누구보다 수고많은 동지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

당중앙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것을 부탁합니다.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습니다.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전구를 바로 조선로동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으로 내세우시며 인민을 위해 그토록 위대한 로고와 심혈

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공개서한의 구절구절에 뜨겁게 넘쳐흘렀다.

수도당원들을 당중앙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해가는 친위전사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쓰신 그이의 친필은 정녕 단순한 편지의 구절이 아니라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심장에서 분출된 인민사랑의 붉은 피방울이였다.

하기에 그이의 열렬한 호소에 화답하여 천만이 떨쳐일어나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대격전을 벌렸다.

인민의 불행과 아픔을 가셔주는 사업이 당과 국가의 최대중대사로 내세워지고 그 실현을 위한 방대하고 거창한 창조전역이 일시에 전개되여 이 땅에는 또다시 짧은 기간에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와 금천군 강북리, 김화군과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재해지역마다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가는 곳마다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려퍼졌다.

엄혹한 자연의 재앙은 이 땅의 여러 지역을 무섭게 덮치며 귀중한 많은것을 앗아갔다.

허나 그 어디에 가나 추호의 비관이나 절망의 빛은 찾아볼수 없고 보다 륭성할 조국의 래일, 행복한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을 품어안으시고 아파하는 자식, 괴로와하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기울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연

의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인민들을 더욱 뜨겁게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가까이에 있건, 멀리에 있건 자식들모두에게 지극한 정성을 깡그리 쏟아붓는 친어버이심정으로 이 땅의 한끝 마지막 한사람까지도 뜨거운 열과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땅에는 자연재해로 무너진 집들은 있어도 슬픔에 잠긴 수재민들은 없다.

뜻밖에 당한 불행보다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희망으로 가슴설레이는 복받은 사람들이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눈굽을 적시고있다.

거듭되는 자연의 광란속에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특대조치들과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취해지는 가슴벅찬 현실에서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격정을 터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일화]

사랑의 특별조치

2020년 8월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현장을 찾으신 다음날이였다.

큰물로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이 걱정되시여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피해현장을 찾으시고 오래동안 피해가 제일 혹심한 농장구역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당위원장에게 전날에 과업을 준대로 군당위원회청사에 수재민들을 들였는가를 알아보시였다.

전날 피해지역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셨던 그이이시였다.

사무실들을 내지 못하여 아직 들이지 못하였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심중하신 어조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청사에 들이고 군당일군들은 천막

에서 생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한지에서 지낼세라 수많은 세대분의 천막을 내려보내주시고도 천막생활이 불편할가봐 수재민들은 군당위원회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이 천막에서 생활하여야 한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제일 좋은것은 다름아닌 인민이 누려야 하며 고생은 일군들이 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그이의 간곡한 당부에 어려있었다.

결코 수재민들을 들일 시설이나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였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당청사까지 서슴없이 내여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 국풍으로 되여야 하였기에 인류사에 없는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며 그토록 절절히 깨우쳐주신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피해복구가 벌어지는 전 기간 자연의 광란으로 집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이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청사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고 걱정없이 생활하고 일군들은 뙤약볕이 내려쪼이고 열풍이 휘몰아치는 야외에 설치한 천막에서 일하는 류다른 풍경이 은파땅에 펼쳐지게 되였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마크가 빛나고 붉은 당기가 휘날리는 곳, 정숙한 분위기가 흐르던 군당위원회청사에

울리는 수재민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

이는 정녕 인민을 위해 당도 있고 국가도 있으며 군대도 있다는 숭고한 멸사복무의지로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참모습이였다.

2. 집집에 어린 사랑과 정

❀ 설계형성안에 깃든 뜨거운 사랑

무릇 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엄엄하거나 위풍당당한 품격을 갖춘 인격자를 먼저 떠올린다.

그것은 력사에 존재하였던 대다수 위인들이 사람들앞에서 자기의 위풍과 당당함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였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작가와 미술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위인들을 하나와 같이 엄엄하고 근엄하게, 위풍이 있는 모습으로만 형상하려고 한것도 아마 그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할 때면 그이를 당과 국가의 수반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기 전에 육친의 사랑과 정으로 자기들의 마음속생각은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는 친어버이의 영상을 떠올리군 한다.

그것은 그이께서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분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이 땅에 솟아나는 모든 살림집

들을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무한한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살림집들을 인민의 리상과 요구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된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의 정은 설계형성안들마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주체104(2015)년 2월중순 어느날이였다.

대동강호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의 상공을 날고있는 한대의 비행기가 있었다.

비행기안에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고계시였다.

기창을 통해 대동강가에 닻을 내린 행복의 돛배마냥 나란히 솟아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내려다보시며 그이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훌륭하고 멋진 행복의 보금자리를 받아안고 기뻐할 교육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잇닿아 펼쳐져있는 건설장의 전경을 내려다보시면서 당에서 비준해준 거리형성안의 요구대로 건축물들을 들여앉히니 정말 보기 좋다고 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에게 제일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

주시려는 불같은 사랑과 정을 안으시고 하늘과 땅, 바다길을 종횡무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다음날 건설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 건설부문에서는 거리형성과 설계를 할 때 모형사판과 조감도를 만들어놓고 건축물들의 규모와 형식을 정하는것을 기성관례로 여기다보니 거리형성과 전반적인 도시면모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부족점들이 나타나는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였지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놓고 거리형성을 위한 설계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은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제서야 비행기를 타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정형을 공중에서 료해하신 그이의 깊으신 의도를 깨닫게 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령도자가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그 어느 령도자가 거리형성안을 더 훌륭히 완성하기 위하여, 그 요구대로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평범한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건설장을 돌아본 례가 있는가.

이날 그이께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는 미래과학자거리에 봉사망형성을 잘할데 대한 문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거리의 봉사망형성계획에 대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어디까지나 주택지구이므로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옷수리

소, 구두수리소 같은 편의봉사시설들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주택지구에는 목욕탕과 약국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자들에게는 상점이나 식당보다도 출퇴근길에 옷이나 신발을 수리할수 있는 봉사시설이 더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지휘부와 해당 부문에서 미래과학자거리 봉사망배치계획을 검토해보고 바로잡도록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건설정형을 료해하신데 이어 다음날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형성안을 더 훌륭하게 완성시킬수 있는 방향과 방도까지 밝혀주시며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믿음은 그대로 천지개벽을 안아오는 원동력이 되여 불과 1년사이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10월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며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였다는 기쁨으로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형성안을 그대로 옮겨놓은듯 멋있고 웅장화려한 미래과학자거리를 보고 또 보시며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마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되여있다는데 대하여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충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호안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았다고, 건물의 외벽을 갖가지 색타일로 마감하고 지붕형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하니 미래과학자거리가 천연색거리로 되였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러시고 멀리에서도 미래과학자거리라는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전자자리길의 모양으로 타래쳐오르게 시공한 53층초고층살림집우에 상징탑을 건설했는데 정말 멋있다고, 모든 건축물들이 고도로 예술화되였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어찌 미래과학자거리뿐이랴.

이 땅의 모든 보금자리들이 절세위인의 이렇듯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에 떠받들려 솟아올랐다.

행복의 보금자리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인민들이 만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일떠선 려명거리.

9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 수천세대에 달하는 40여동의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을 새로 일떠세우고 70여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건해야 하는 려명거리건설은 1년도 안되는 건설기간에 비해볼 때 실로 방대한 공사였다. 동시에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거리형성과 관련한 수십건의 선진건설기술들을 도입하여야 하는 첨단과학기술전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려명거리 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형성안들과 설계도들을 보아주시고 몸소 여러 차례나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건설의 세부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여기에 이런 수자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해주신 려명거리형성안만 하여도 수십차에 걸쳐 무려 1 390여건.

그이께서 심혈을 다해 지도해주신 113건의 문수물놀이장형성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또 이렇듯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욱이 려명거리건설에 아로새겨진것이다.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던 어느날 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려명거리는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현대적인 거리형성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지금 철거세대주민들이 매일과 같이 건설장에 나와보면서 공사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데 려명거리를 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여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려명거리건설에서 창조되는 건설속도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진군속도이며 우리 당의 강국건설속도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설계형성안의 요구대로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정에 떠받들려 려명거리는 또 하나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이

땅에 일떠설수 있었다.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이 땅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보금자리들을 가장 완벽한 수준에서 완성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기울이시는 절세위인의 사랑과 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8년 11월중순 국경관문도시 신의주시의 건설총계획을 지도해주시였다.

나라의 곳곳에서 중요대상건설이 립체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속에서도 신의주시건설문제를 중시하시며 여러 차례나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시건설총계획도와 신의주시도시건설전망모형사판을 보아주시면서 신의주시를 잘 꾸리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2019년 5월 강계시와 만포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해주시면서도 살림집지구들에 주민들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들사이를 조금씩 더 넓히고 건물들을 묶어주면 공지가 더 조성되게 되는데 거기에 학교를 배치하고 주변에 록지도 조성하면 자연환경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축형성을 아주 멋있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시를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고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지방도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하여 설계가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안목도 틔워주시고 미세한 형상까지 바로잡아주시며 일일이 보아주신 형성안만 하여도 무려 8 800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그이의 사랑과 정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별들도 조으는 이른새벽,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도 삼지연시에로 마음을 달리시며 위대한 사색의 점과 선을 하나하나 그어주시던 절세위인의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으랴.

8 800여건의 형성안!

고도의 문명과 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건설은 례사로운것으로 되고있다.

하다면 8 800여건의 형성안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세인을 놀래우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것인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있는 살림집건설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점과 선, 면, 립체, 공간과 같은 실무적인 건축언어로는 그 의미를 다 설명할수 없는 인민을 위한, 인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이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기에 절세위인께서는 형성안의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이렇듯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이다.

하나하나의 형성안마다에 이처럼 거대한 무게가 실려있을진대 이 땅에 솟구쳐오른 수많은 보금자리들마다에 깃든 그이의 천만로고를 과연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켜 인민의 행복넘친 보금자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마련하기 위하여 수많은 설계형성안들을 지도하시며 로고를 바쳐가신다.

가까운 몇해어간에 평양시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통이 큰 건설작전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총계획안과 1단계인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지구조감도, 설계안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 완성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송신, 송화지구에 건설하는 1만세대 살림집을 지난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식의 살림집으로 건설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원래 해당 부문 일군들이 작성한 설계안은 건물배치와 살림집립면형성에서 지난 시기의 거리형식과 별로 차이가 없

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을 배치하는 형식이 지난 시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 편의봉사망도 배치하고 기단층도 굵직굵직하게 련결시키면서 건물들의 높낮이차도 줄데 대하여 그리고 도로를 가로질러가는 건물형식의 고가다리도 배치하고 거기에 대형전광판도 걸며 거리를 통채로 지나가는 관통건물도 배치하는 등 건축형식이 새롭게 달라진다는것이 직관적으로 안겨오게 설계안을 작성하도록 일일이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려명거리에 70층살림집을 건설하였는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지구에 80층살림집을 하나 건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체식철근콩크리트로 건설하는 80층살림집도 이 지구의 살림집형성안에 반영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해주신 설계안만 하여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령역의 건물배치계획안과 중심도로계획안, 개별건물들의 설계안, 공공건물들의 배치계획안과 설계안을 비롯하여 무려 540여매에 달한다.

때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설계안을 현대적인 맛이 나게 품을 들여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설계에서 미학성을 철저히 준수할데 대하여 강조하기도 하시였다.

어떤 날에는 한밤을 지새우시면서 해당 단위에서 작성한 설계문건들을 몸소 보아주시며 지도해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설계안은 조선로동당의 이민위천의 리념과 건축미학사상이 응축된 설계안으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으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완공될수 있었다.

이 땅에 일떠선 하나하나의 살림집들은 단순히 콩크리트혼합물과 철근에 의하여서만 솟아난 건축물이 아니다.

자신의 온 심신과 정력을 깡그리, 불같이 태워서라도 인민들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려는 일념을 지니시고 하나하나의 설계형성안들을 품들여 완성시켜주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정이 그대로 기둥이 되고 층층계단이 되고 벽체가 되여 이 땅에 솟아오른 인민사랑의 《탑》들이다.

❀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은 태양처럼 뜨겁고 열렬한 헌신,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헌신이다.

이 땅에 솟아오른 눈부시고 황홀한 보금자리들마다에는 인민을 위한 수많은 대상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여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자욱들이 진하게 어려있다.

무릇 건설주라고 하면 건설을 주문하고 완공된 건설물의 관리자로, 주인으로 되는 사람이나 단위를 뜻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실 때마다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건설 전 과정을 품을 들여 지도하신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도시와도 맞먹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하게 솟아오른 려명거리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시작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민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슴배여있다.

주체105(2016)년 3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려명거리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려명거리를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

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거리로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건물들을 금수산태양궁전쪽에는 높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게 건설하여 정중성을 보장하고 영생탑쪽에는 웅장화려하게 건설하여 하나의 건축군을 형성할데 대하여서와 령에네르기, 록색건축기술을 받아들여 거리를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특색있게 일떠세울데 대하여 그리고 공공건물들과 봉사시설들의 자연채광조건이 좋게 설계할데 대하여서와 시공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그이께서는 건설력량편성문제로부터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리시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수시로 주시며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대체로 건설중에 있는 건물들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어놓는다고 하지만 의연히 사고요소가 내재되여있는 법이다.

하지만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지키고 꽃피우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험한 건설현장을 찾고찾으시였다.

려명거리의 상징과도 같은 70층초고층살림집에는 이곳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이께서 남모르게 바쳐가신 불같은 헌신의 자욱이 어려있다.

한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70층초고층살림집이 일떠선 후 이곳을 찾으시였던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찾으신 그때는 아직 많은것이 미완성상태였습니다. 70층건물을 불과 수십초만에 오르는 승강기도 아직 시운전상태였습니다. 그런 승강기에 우리 원수님께서 주저없이 오르시였을 때 저희들은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졸아드는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시운전상태에 있는 승강기를 타시고 한창 건설중에 있는 초고층살림집에 오르신줄 인민들이 알기나 할가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그이께서는 70층초고층살림집의 여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자재보장대책을 보다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서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시공조직과 지도, 감독통제를 더욱 짜고들데 대하여, 건설자들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할데 대하여 등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끝없는 헌신은 려명거리살림집들의 층계 하나,

문손잡이 하나에도, 가로수 한그루, 한포기의 잔디, 한떨기의 꽃마다에도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오늘도 려명거리는 절세위인의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과 숭고한 인민사랑을 길이 전하는 기념비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7년 12월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삼지연시를 찾으시여 이곳을 선진문명을 대표하는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제일 훌륭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봄에도 오시고 한여름의 삼복철에도 오시였으며 마가을의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도, 눈내리는 겨울에도 오시여 삼지연시건설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언제인가 하염없이 내리는 흰눈을 맞으시며 오랜 시간 건설장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살게 될 새집을 돌아보려 안으로 들어서시였던 그때 그이의 옷자락에서 흘러내리던 물방울들…

그것을 보는 건설자들의 마음속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진정 하늘도 머리숙일 눈물겨운 헌신이였다.

2019년 4월 삼지연시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지방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에로 도약시키기 위한 혁명을 하고있다고, 삼지연시꾸리기는 온 나라 인민

들의 물질문화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께서 찍어가신 헌신의 자욱속에 2019년 12월 마침내 삼지연땅은 눈부신 천지개벽을 부르는 그날을 맞이하였다.

종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리형성이며 매 구획들의 조화로운 구성,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이 훌륭히 결합되고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는 물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하나하나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산간문화도시의 벽체색갈 하나에도 절세위인의 헌신의 자욱이 진하게 스며있어 사람들은 무심히 대하지 못한다.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삼지연땅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위대한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매일 보아온 우리들조차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 이 희한한 인민의 리상향, 인민의 행복넘친 보금자리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과 헌신의 세계가 응축된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백두대지에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를 자랑스럽게 일떠세운 건설자들이 한결같이 터친 격정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이 희한한 자기 모습을 뽐내며 솟아있다.

자고로 우리 선조들은 록음이 우거진 모란봉의 청신한 기운이 감돌고 구슬같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을 명당이라고 일러왔다.

하기에 옛 문인들도 대동강에 대한 수많은 시가를 지어 후세에 전해내려왔으니 고려시기의 한 시인은 《대동강》이라는 시에서 《천년토록 감탄하나 아직 다는 표현 못해라》라고 했고 다른 문인은 《자연풍경이 또한 아름다워 대동강은 천하의 절경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명당자리에 원아들의 보금자리를 앉힐 터전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2014년 6월 어느날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건축물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사소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침실을 비롯한 모든 요소요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시공하며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오락실도 특색있게 꾸려주고 보육원, 교양원들의 생활실은 물론 후생시설들도 잘 건설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은 탁아소, 유치원생들인것만큼 책상과 걸상, 침대를 아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

게 제작할데 대하여서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공원을 동심에 맞게 재미나게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서까지 세심히 당부하고 또 하시였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여러 차례나 현지를 찾으시며 바치신 그이의 헌신의 세계가 있어 넉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육아원과 애육원이 원아들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섰다.

원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바치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도 이어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시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새로 건설하도록 몸소 발기하시고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건설의 전 과정을 지도해주시며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였다.

건설이 한창이던 때 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설계가 잘되지 못한것을 두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를 개작하도록 해주시였고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대책도 몸소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 놓을 가구와 집기류, 주방설비들 그리고 교육기자재들의 보장대책도 하나하나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 원산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은 당에서 원아들에게 마련해주는 선물인것만큼 오작시공을 내면 절대로 안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멋쟁이아동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선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주방과 2층종합유희실, 무용실, 목욕실, 탈의실, 내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복도벽면에 붙인 그림을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주제별로 단락을 주면서 그려붙일데 대하여, 건물내부를 자기의 특성에 맞게 틔여줄데 대하여, 내정에 유희기구들을 더 설치해주며 마당이나 내정에 질좋은 보도블로크를 생산하여 깔아줄데 대하여, 1층 외부에 300석규모의 원형식사실을 증축하여 꾸리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준공식을 몇시간 앞두고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깊이 마음쓰시며 기울이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은정속에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원아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일떠설수 있었다.

나라마다 령도자가 있다지만 조선에서와 같이 한 나라의 령도자가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여 평범한 인민들과 부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워주는 령도자가 그 어디에 있으랴.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사랑의 뜨거운 열과 정을 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날 보금자리들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 언제나 집주인의 심정으로

평양의 룡흥네거리에는 44층, 36층짜리 살림집들이 쌍벽을 이루며 솟아있다.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이 살림집들에는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여 집주인의 심정으로 사소한 부족점도 지적해주시고 필요한 비품들도 더 갖추어주어 교육자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102(2013)년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이곳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당시 건설자들은 비상한 속도로 방대한 건설과제를 수행하고 가구설치를 비롯한 마감공사를 진행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색타일과 경질유리로 특색있게 장식한 살림집외부를 만족하게 바라보시고나서 여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어느한 살림집에 들어서시던 그이께서는 전실로 들어가는 복도벽에 시선을 주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전실로 들어가는 복도벽에 거울이 없다

고, 거울을 걸어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가족들이 집을 나설 때 머리단장도 하고 옷매무시도 바로할수 있게 출입문가까이에 타원형의 거울을 걸어주며 그밑에는 머리빗 같은것을 놓을수 있는 기단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출입문에서 신발장까지는 거리가 좀 먼것같다고, 장식장과 벽사이에 생긴 공간을 장식띠로 처리하려고 한다는데 짬이 보이지 않게 잘하여야 한다고…

복도벽의 거울과 출입문에서 신발장까지의 거리.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집주인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가늠할수 없는 사소한것이였다.

하지만 절세위인께서는 그 사소한것에서도 여기에서 살게 될 집주인들의 자그마한 불편까지 헤아려보시였던것이다.

공동살림방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TV탁을 보시며 TV탁을 큰것으로 놓아주었는데 그에 맞는 화면이 큰 액정TV를 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무엇을 더 갖추어주어야 하겠는가 하는것을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그릇세트를 보내주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시였다.

사실 그이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최상의 수

준에서 꾸리도록 하시고 모든 가정들에 질좋고 보기 좋은 고급가구들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설비들을 꼭같이 일식으로 다 놓아주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바닥과 벽체, 창가림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마감건재들을 쓰도록 하시여 집주인들은 맨몸으로 들어와 한번의 잔손질도 하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여 있었다.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신데 비하면 그릇세트는 하나의 자그마한 살림살이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자그마한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해주시였던것이다.

시간이 퍼그나 흐르도록 집주인의 심정으로 살림집내부를 세세히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7층에 있는 실내휴식장으로 가려고 하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승강기가 조종시험중에 있기때문에 승강기가 다닐 때 올라가보시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운동삼아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흔연히 말씀하시고나서 몸소 앞장에서 계단을 2개, 3개씩 짚으시며 17층까지 오르시였다.

절기는 가을에 들어섰지만 아직은 한낮의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때였다.

그러다보니 그이의 옷은 잠간사이에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실내휴식장을 돌아보시고나서 실내휴식장을 특색있게 잘 꾸렸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어제날에는 산보하러 마당으로 내려갔다면 오늘은 승강기를 타고 웃층의 실내휴식장으로 올라올 교원, 연구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안광에는 따뜻한 빛이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르신 2백 수십여개의 계단, 그 개개의 층계들은 진정 위민헌신의 길에 뿌려진 그이의 후더운 땀이 응결된 행복의 디딤돌들이였다.

이곳 살림집들의 서재에 갖추어진 당반식책꽂이에도 집주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하나의 세부도 놓치지 않고 마음쓰신 절세위인의 다심하신 사랑이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어느한 집의 서재에 들어서시여 책상앞에 앉아보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뒤벽면의 큰 책장과 책상이 붙어있는 앞벽면을 번갈아 바라보시다가 손들어 앞벽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 당반을 설치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서도 교수준비와 연구사업을 하다가 뒤에 있는 큰 책장에 가서 책을 가져오는것보다 늘 보는 책들은 당반식책꽂이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는것이 더 편리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번에 해보고 좋으면 앞으로 살림집들을 설계할 때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났다.

사실상 앞벽면에 붙어있는 책상에서 뒤벽면의 큰 책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발자국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원, 연구사들이 필요한 책을 꺼내는데 소모되는 시간도 몇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들을 리용할 교원, 연구사들의 심정에서 그들의 사색이 잠시라도 중단될가봐 걱정하시며 그렇듯 다심하게 일깨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날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책상앞에 앉으시여 마주선 벽면에 설치된 당반식책꽂이를 만져보시며 편리성을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책을 꽂아놓을수 있는 당반을 설치하니 얼마나 쓰기 편리한가고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시작은 있어도 그끝을 알수 없는 무한대이다.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정은 바다처럼 넓고 깊으며 어머니처럼 세심하다.

그이께서 완공된 건축물들을 찾으시여 료해하시는 하나하나의 대상들에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 이곳을 리용할 집주인들의 요구와 편의가 놓여있다.

2012년 5월말 창전거리의 어느한 고층살림집에까지 오르

신 그이께서는 살림집건설에서는 건축효과보다도 거기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편리를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어느때인가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초고층살림집의 맨 웃층인 45층에 오르시였을 때였다.

몸소 집주인이 된 심정으로 방바닥도 일일이 짚어보시고 부엌에 들어서시여서는 주부의 행복한 모습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그이께서는 이어 베란다에 나서시였다.

대동강을 따라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일군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쾌한 모습에 한껏 심취되여 한동안 로대를 떠날줄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을 정깊게 둘러보시다가 문득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러시고는 바람소리가 들린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도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강구었다.

정말 창문가에서 들릴가말가한 바람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초고층에서는 바람이 센것이 응당한것이라고 여겨오던 일군들은 아무 표정도 없이 창밖으로 펼쳐진 전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에게 바람이 들어오

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여러 호동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잘할데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도,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있던 일군들도 전혀 가늠하지 못한 미세한 바람소리!

정녕 그것은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였다.

초고층살림집에서 살게 될 집주인들이 스며드는 한점의 찬바람때문에 불편해할세라 마음쓰시며 사소한 문제도 크게 보시고 그들의 심정으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절세위인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안았다.

한창 건설중에 있던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한 살림집을 돌아보실 때였다.

여러칸이나 되는 방들의 갖춤새와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집주인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관심하시던 그이께서는 위생실도 보아주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위생실의 크기만 보시고 지나치실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위생실안으로 성큼 들어서시였다.

위생실의 벽과 바닥에는 색갈고운 무늬의 타일이 일매지게

붙여져있었고 욕조에는 맑은 물이 찰랑이고있었다.

한눈에도 집주인들의 마음에 쏙 들도록 성의있게 꾸렸다는 것이 알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면대에 설치한 수도꼭지를 틀어보시자 맑은 물이 쏴― 하고 소리를 내며 흘러나왔다.

그이께서는 물이 잘 나온다고 만족해하시며 타일을 붙인 벽과 바닥을 다시금 세심히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 위생실이나 세면장바닥을 제대로 시공하였는가 하는것은 바닥에 물 한바께쯔를 쏟아보면 알수 있다고 하시며 한 일군에게 물을 한바께쯔 부어보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이 욕조의 물을 바께쯔에 담아 그것을 바닥에 쭉 부었다.

물은 순식간에 빠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이 빠지는것을 보시고 위생실바닥을 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시공을 잘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위생실바닥에 부어보도록 하신 한바께쯔의 물.

그 물은 인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일군들의 머리를 말끔히 정화시킨듯싶었다.

무엇을 하나 보시고 대하시여도 항상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 집주인들의 심정에서 보고 대하시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승강기로 향하시였다.

승강기앞으로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승강기가 몇대인가고 물으시였다.

한개 현관에 2대 설치되여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승강기예비부속품도 미리 갖추어놓고 관리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승강기가 고장나 사람들이 걸어서 오르내리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줄세라 걱정되여 하시는 말씀이였다.

승강기를 타시고 5층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승강기에서 내리시며 승강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보라고 다시금 말씀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초고층이여서 승강기를 운영하지 못하면 웃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할것을 생각하시여 거듭 일깨워주시는 그이이시였다.

이때였다.

승강기에서 내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시 돌아서시여 승강기의 바닥과 복도바닥면을 찬찬히 보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의 시선이 일시에 바닥으로 쏠렸다.

그들에게는 별다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도 감촉하지 못한 승강기바닥과 복도바닥면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보니 복도바닥면보다 약간 처지는데 교정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승강기를 타고 운전공들과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들, 많은 건설자들과 일군들이 오르내리였지만 누구도 승강기가 약간 처진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승강기바닥과 복도바닥면과의 미세한 차이, 그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차이였다.

그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단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절세위인께서만이 보실수 있는 차이였다.

승강기를 리용할 집주인들의 심정에서 모든것을 보시고 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는 절대로 등한시할수 없는 차이였다.

어찌 이뿐이랴.

언제인가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삼지연시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아무리 훌륭하게 일신시킨다고 하여도 음료수와 생활용수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겪

게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민들의 물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쓰시였다.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려명거리의 70층초고층살림집의 승강기를 리용할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승강기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까지 하나하나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언제나 집주인의 심정으로!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살림집을 보시여도 그것을 리용할 인민의 요구와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분이시다.

❀ 평가는 집주인들이

하나의 창조물을 대하고 하나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다.

여기에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실천의 기준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이 땅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살림집들을 품들여 멋쟁이로 꾸려주시고도 그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인민들에게서 받도록 하시는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주체104(201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의 대재앙이 몰아온 큰물피해를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하게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당시)을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어제날의 모습이란 전혀 찾아볼수 없는 기적같은 현실을 펼친 선경마을을 기쁨속에 돌아보시고났을 때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살림집들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내부마감공사를 질적으로 하도

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공건물공사를 얼마나 질적으로 하였는가 하는것은 실지 그것을 리용할 주인들인 인민들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도 그 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다고 하여야 진짜 건설을 잘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같이 뜨거우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듯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에 대한 평가기준도, 평가할 권리도 살림집을 쓰고살 집주인들에게 주시랴 하는 생각으로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 인민들이 쓰고살 건축물들이기에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모든 면에서 완전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의 표본이 될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이 곧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관이 낳은 요구이고 기준이기에 2019년 4월 어느날 삼지연시건설현장을 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 꾸린 살림집에 입사한 인민들의 반향이 어떤가에 대하여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살림집을 지어주시니 모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그들이 몹시 좋아하고있고 진심으로 감사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였다고, 바로 그렇게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막바지의 인민들속에서도 우리 생활이 좋고 우리 제도가 좋으며 우리 당 정책이 좋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게 하는것이 당의 투쟁목표이고 리상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라선시와 삼지연시에서만이 아니였다.

여기에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의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린 감사편지가 있다.

2020년 여름 련일 내린 무더기비로 하여 범람한 례성강물은 하류에 위치하고있는 강북리를 무섭게 휩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북리가 입은 피해실태를 료해하시고 즉시 리소재지의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여 리의 면모를 일신시킬데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2020년 9월 어느날 짧은 기간에 큰물피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번듯하게 새로 일떠선 이곳을 찾으시여 여러곳을 만족속에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보시였다.

그러시고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강북리인민들은 이렇듯 자기들이 당한 재난을 가셔주기 위해 기울이신 절세위인의 사랑과 은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워 그이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던것이다.

《…

하루아침에 한지에 나앉았던 우리들에게 궁궐같은 새집들을 안겨주신 하늘같은 그 은덕도 갚을 길 없는데 새로 지은 살림집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겠는가 알아보시려 멀고 험한 우리 마을에까지 찾아오실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 거듭 물어보시며 손수 가마뚜껑까지 열어보시고 천정의 높이까지 가늠해보시는 친어버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TV에서 뵈오며 우리 원수님처럼 농장원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고마운분이 이 세상 어디에 또 계시랴 하는 생각에 모두가 울고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원수님께서 손수 짚어보신 방바닥이며 만시름놓으시고 앉으셨던 창턱이며 높낮이를 가늠해보신 천정이며 부뚜막이며 가마랑 얼마나 맞춤하고 좋은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꼭 듭니다.

몇달전만 하여도 딸을 따라 다른 고장으로 가겠다던 농

장원은 원수님 마련해주신 새 보금자리에 이사짐을 다시 풀었고 제대되여온 아들을 장가보낼 생각에 여러칸짜리 살림집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농장원은 세칸짜리 덩실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온 동네 처녀들을 꼽아가며 며느리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언제면 아버지원수님 다녀가신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는가고 손가락을 꼽아가며 개학날만 기다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예로부터 재난만을 가져다주던 례성강하류의 북쪽에 자리잡았다고 하여 강북리로 불리운 우리 마을이 이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별천지가 펼쳐져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강복리가 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이다싶이 TV에서 큰물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아 불행에 울면서도 집을 지어주기는 고사하고 걱정마저 해줄 당도 없고 정권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돌보는 일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이런 이야기가 어찌 강북리에만 새겨져있다고 하랴.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은정은 강원도 김화군의 피해복구현장에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여 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금천군 강북리피해복구에 이어 또다시 천지개벽을 이룩한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적소행과 혁명적투쟁기질에 실로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된다고, 인민군대가 안아온 이러한 결실은 단순한 물질적인 창조물이기 전에 우리 당이 가장 중히 내세우는 정신적재부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군의 한 일군에게 군내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주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모두가 좋아한다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우리 당이 구상하는 리상문명사회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에서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처럼 기쁘고 보람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당에서 취해준 조치에 따라 애로와 난

관속에서도 비약적인 속도로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는것을 보고 현지주민들이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좋아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기뻐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이제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무릇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자연재해가 휩쓸고 지나간 피해지역들을 찾고찾아 복구사업의 웅대한 작전을 펼쳐주신데 이어 피해복구건설이 한창인 건설장들에로 또다시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 인민의 어버이,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우시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의 권리를 집주인들에게 주시는 인민의 령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분이시기에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에도 피해복구건설투쟁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 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존중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의 권리를 집주인들에게 주시였을뿐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빠짐없이 들어주시여 살림집들을 더욱 훌륭하게 완성시켜주시였다.

2020년 이 나라를 휩쓸었던 폭우와 강풍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도 큰 피해를 입혔었다.

태를 묻고 살아온 정든 집들이 사품치는 물속에 잠기는것을 눈을 편히 뜨고 보면서 이곳 인민들은 너무 억이 막혀 비내리는 하늘만 원망스레 바라보았었다.

그런데 물이 채 찌지 않아 군이나 도의 일군들도 아직 올념을 하지 못하고있던 대청땅에, 그것도 감탕만 질벅한 험하디험한 그 길로 절세위인께서 제일먼저 찾아오실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청리일대의 많은 살림집들과 농경지가 큰물로 침수되였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즉시 피해현장에 몸소 나오시여 실태를 료해하시면서 피해지역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신데 이어 복구사업에 세심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대청리의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당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폭우로 범람한 강물에 잠긴 대청리의 800세대가운데서 400세대만 새로 건설하고 나머지

400세대는 개건보수하자는 안을 준비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800세대를 모두 헐고 새로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도리여 농장원들이 1동2세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독집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농장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인민의 친어버이가 되시는 위대한분, 세상에 인민밖에 모르시는 이런분이 또 계시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날 큰물피해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린 대청리를 찾으시고 규모있게 들어앉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답게 체모를 드러낸 마을들을 만족속에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 만나본 농장원들의 요구대로 살림집을 건설자재소요량이나 부지절약측면을 고려하지 말고 1동1세대로 지어주라고 지시를 주고 설계안을 비준해주었는데 그렇게 하기 정말 잘하였다고, 농장원들의 요구에 맞고 농장원들이 좋다고 해야 많은 품을 들여 새로 건설한 보람도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이민위천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인

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평가를 우선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신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인민들이 입사한 후 살림집을 쓰고사는 사람들로부터 편리한 점은 무엇이고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하는 의견을 들어보아야 앞으로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좋은 점은 살리고 부족점은 극복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민을 위한 옳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자면 인민들의 반영을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을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 어느때인가는 집구조가 어떤가, 시공은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갖추어진 비품들이 마음에 드는가 안드는가 하는것은 집주인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알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시였다.

2021년 3월에 진행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책임비서들이 항상 민심을 중시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인민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것인가.

인민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인민에게서 받는 평가를 제일로 여기시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에 대한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구절구절마다 맥박치는 절세위인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이 나라의 인민들은 다

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안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체현자, 걸출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일화]

류다른 김장철풍경

과학자, 연구사들이 보금자리를 편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첫 김장철이 온것은 2014년 11월이였다.

그때 집앞의 남새밭에서 실하게 자란 김장용남새들을 받아안은 과학자가정들에서는 또다시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이런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바로 집곁에서 자란 남새로 김장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연깊은 배추며 무우를 받아안고 고마움에 눈물흘리는 그들에게는 일군들에게서 전해들은 못잊을 그날의 사연이 환희롭게 되새겨졌다.

주체103(2014)년 6월중순 어느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들끓던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찾아오시였다.

오랜 시간 과학자주택지구건설을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아빠트들사이에 나있는 넓은 공지를 가리키시며 저기에는 무엇을 건설하려는가고 물으시였다.

설계에 반영되여있는대로 휴식장과 놀이터를 앉히려 한다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그곳을 바라보시다가 무엇인가 결심하신듯 그들쪽으로 돌아서시며 공지에 남새밭을 만들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남새밭이라니?!)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지구의 공지들에는 응당 그에 어울리는 휴식장, 놀이터를 건설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왔던것이다.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평양시교외에 위치한 살림집지구의 특성에 맞게 아빠트들사이에 남새밭을 만들고 올해 자그마한 온실들도 건설하여주면 과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남새밭정리와 온실건설도 공사계획에 포함시켜 질적으로 해주어야 하겠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새겨듣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준공달은 10월이였다.

건설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과학자주택지구 준공의 10월이 깊이 새겨져있었지만 누구도 그 10월이 김장철을 앞둔 때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교외에 위치한 이 살림집지구에서 살게 될 주인들의 남새문제에까지 생각이 미친 사람은 더구나 없었다.

건설을 전문으로 해온 설계가들에게도, 건설일군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였다.

어느 건설사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렇게 되여 새집들이경사가 시작될무렵에는 남새밭과 온실에 흐뭇한 남새작황이 함께 펼쳐지는 희한한 광경이 마련되였다.

꽃밭도 아닌 푸르싱싱한 남새밭을 보며 사람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금 격정속에 되새겼다.

류다른 김장철풍경.

인민의 어버이의 숭고한 사랑이 펼치는 또 하나의 류다른 풍경이다.

3. 만복이 넘치는 사랑의 집

❀ 사랑의 축복속에

무릇 사회발전과 문화의 총체인 문명은 곧 그 시대의 얼굴, 국가의 징표이기도 하다.

문명발전의 각이한 력사를 통해 한 나라, 한 민족의 지성과 국력, 향유의 높이를 가늠해보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민과 문명은 불가분리이다.

인민을 떠나 문명을 생각할수 없고 문명을 떠나 인민을 생각할수 없다.

문명의 제일창조자는 바로 인민인것으로 하여 마땅히 인민은 문명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문명한 생활을 누가 누리는가, 이것은 오늘날 해당 사회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자막대기이며 현실적인 기준이다.

살림집문제 하나만 놓고보자.

부유층들이 호화주택에서 풍청거리며 막대한 부를 탕진할때 수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아 가난과 빈궁

에 허덕이고있는것이 이른바 문명을 뽐내는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하지만 주체조선에서는 적대세력의 온갖 봉쇄와 제재로 하여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거의 해마다 웅근 하나의 거리들이 일떠서고 곳곳에서 문명의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마냥 솟아나고있다.

더우기 집주인들이 직접 준공테프도 끊고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를 하는 놀라운 사실들은 세계언론계의 특대소식으로 되고있다. 조선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큰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있다.

그들은 만복이 넘치는 사랑의 보금자리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각계각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제눈으로 확인하고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뜨고 다음에는 머리를 끄덕이고 그다음에는 한동안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한다.

그 깊은 생각이 무엇이겠는가.

유럽의 한 국회의원은 《나는 조선에 가보고 완전히 감동되였다. 그것은 서방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기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방문할것을 권고한다. 현실을 보고 그다음에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눈으로 보아야 현실을 제대로 투시할수 있고 그 본질을 옳바로 깨달을수 있다.

어떻게 되여 이 땅에서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으며 행복이 넘쳐나는 사랑의 보금자리들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제대로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주체102(2013)년 9월.

사회주의만복의 금방석으로 훌륭하게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에서는 이 나라의 평범한 과학자들이 새집으로 이사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온 나라 인민들이 절세위인의 은정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그들을 축복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의 보금자리마다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더욱더 어려와 잠 못이루던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그이께 삼가 올리였다.

그런데 이들의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의 축복이 담긴 친필을 보내주실줄이야…

《2013. 9. 17

김 정 은

축하합니다.

모든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

제를 일일이 풀어주시며 훌륭한 거리를 일떠세워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몸소 살림집건설계획과 설계를 지도해주시고 비내리는 궂은날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여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였다.

완공된 거리를 돌아보시던 그날에는 고급가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여러 살림집들도 일일이 돌아보시며 마감건재와 가구의 질은 어떠한가,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졌는가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부엌에 들리시여서는 손수 찬장문도 열어보시고 가시대도 만져보시며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그런데도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는 다 잊으신듯 모든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복해주시는 절세위인의 그 은정에 과학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새 살림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서는 보금자리들을 찾고찾으시며 집집마다 만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해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주체110(2021)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안의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 삼지연시건설공사정형과 도시경영실태, 농사실태 등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천지개벽된 삼지연땅의 인민들이 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며 몹시 좋아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말을 들으시고 인민들이 반기는 보람있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을 금할데 없다고, 인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지연시건설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기쁨을 표하시였다.

그러시고 삼지연시건설사업이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한대로 훌륭하게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고향땅, 백두산이 솟아있는 정든 고장에서 문명하고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될 전체 삼지연시인민들의 행복과 복리를 따뜻이 축원하시였다.

만족하신 시선으로 천지개벽된 삼지연시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그속에서 만복을 누릴 인민들을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존안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사회주의선경마을로 전변된 강북리!

이곳의 집집마다에도 만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신 절세위인의 사랑의 축복이 어리여있다.

폭우와 강풍피해를 완전히 가시고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소재지마을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의 한 일군에게 이제는 빨리 주민들을 입사시키는것이 좋겠다고, 새집들이를 하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살기 바란다고 마음속깊이 축복해주시였다.

강북리인민들은 절세위인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안고 오열을 터치였다.

절세위인의 축복속에,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하는 날 집집마다에 인민의 감격이 차넘쳤다.

로동당세상을 노래하며 흥겨운 춤판을 벌려놓는 로인들과 청춘남녀들, 꿈을 꾸는것만 같아 새집 문턱을 선뜻 넘어서지 못하는 농장원들, 볼수록 멋있는 새집의 문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집주인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감사의 정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만복이 넘치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사랑의 축복을 안겨주신 절세위인을 우러러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와 고마움의 목소리가 온 강북땅을 진감하였다.

《이번 강풍에 의해 파괴된 살림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고 걱정속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던 우리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고충을 제일먼저 헤아리시고 인민군군인들을 보내주시여 이렇듯 희한한 새집을 지어주시고 부엌세간과 생활용품에 땔감까지 갖추어주도록 해주시였으니 친부모인들 이보다 더 다심하랴 하는 생각에 눈물만 앞섭니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매 살림방들을 돌아보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신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우리 집 구석구석에 뜨겁게 어리여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않고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저의 깨끗한 량심과 열정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절세위인의 사랑의 축복속에 만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비단 은하과학자거리에 보금자리를 편 과학자들과 삼지연시의 인민들, 강북리와 대청리 같은 피해복구지역 인민들뿐이 아니다.

2019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마감단계에 이른 중평남새온실농장의 호동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밖에 나서시였을 때에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은 뒤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날이 어두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면서 여기 종업원들이 살게 될 살림집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주택지구로 향하시였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하게 꾸려진 살림집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쁨어린 어조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온실농장 종업원들이 이런 훌륭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게 되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저절로 나올것이라고 하시였다.

이윽고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인민들을 위해 또 하나의 큰 일을 해놓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이 멋에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겠는가고 희열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황홀한 새집에서 웃음꽃을 피워올리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너무도 기쁘시여 걸음을 옮기시다가는 환한 미소속에 살림집전경을 다시금 바라보시며 살림집이 보면 볼수록 정말 멋있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오로지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는분이시기에 깊은 밤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고 만복이 넘쳐나는 보금자리에서 복락을 누려갈 인민들의 앞날을 마음속으로 축복해주신것 아니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보금자리들마다에 만복이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절세위인의 사랑의 축복이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새로 일떠설 때마다 그곳에서 살 집주인들이 준공테프도 직접 끊고 온 나라의 축복과 경사속에 새집들이를 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신다.

2015년 6월초 어느날이였다.

《로동신문》을 펼쳐보던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한껏 어리였다.

물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희한한 궁전으

로 일떠선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도 감동적이였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여섯살이나 되였을가말가한 원아들이 제손으로 직접 준공테프를 끊는 사진이 준 충격때문이였다.

《아니, 원아들이 제손으로 준공테프를 끊다니?!》

《저거, 나보다 작은 애들이 준공테프를 끊는다야!》

《내 80이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일이외다. 정말 놀랍수다.》

…

신문과 TV방송으로 보도된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소식에 접하면서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터친 경탄의 목소리들이다.

아이들이, 그것도 부모없는 아이들이 희한하게 일떠선 궁전같은 새집의 준공테프를 직접 끊었다는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여 당과 국가의 일군들도 아니고 또 대상을 건설한 건설자들도 아닌 철부지에 불과한 아이들이 준공테프를 끊게 되였는가. 원아들이 황홀하게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준공테프를 자기들의 손으로 세상이 보란듯이 끊게 된데는 어떤 사연이 깃든것인가.

주체104(2015)년 국제아동절인 그날 나라일의 분망하신 속에서도 원아들의 보금자리로 새로 일떠선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바쳐가시

며 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아들이 살게 될 궁궐같은 새집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원아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게 된것이 기쁘시여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절세위인의 모습을 뜨거운 심장없이는 새겨볼수 없는 그들이였다.

일군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그래야 어른이 되여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놀라움은 형언할수 없는 환희로 변하였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 궁전의 준공테프를 끊는다!

이렇게 되여 만사람의 축복속에 원아들이 절세위인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사랑의 축복이 깃들어있는 자기들의 보금자

리, 육아원, 애육원의 준공테프를 끊는 전설아닌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던것이다.

그로부터 몇달후에는 양로원보양생들도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속에 자기들의 손으로 준공테프를 끊고 절세위인의 사랑이 구석구석 깃들어있는 평양양로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꿈아닌 현실이 또다시 펼쳐져 사람들의 감동을 더해주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

절세위인의 사랑의 축복속에, 온 나라의 축복속에 일군들도, 건설자들도 아닌 집주인들이 제손으로 직접 끊은 준공테프!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없고 지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응축되여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들이 선진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리상적인 보금자리들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워주시고 집집에 만복이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안겨주시며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되시여

세간나간 자식의 집에 누가 제일먼저 찾아오는가. 새집들이를 한 아들딸네 집문을 누가 먼저 두드리는가.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친부모들이다.

허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의 수천만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정으로 인민들의 새집들이기쁨도 남먼저 축하해주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에 보금자리를 펴고 행복을 누려가는 가정들을 찾으시여 새집들이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온 나라 가정의 친어버이이시다.

평양의 중심부에 솟아있는 창전거리!

이 거리에는 절세위인께서 한가정의 어버이가 되시여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도 안겨주시였을뿐 아니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살뜰한 정을 부어주신 평범한 가정들이 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신혼부부가정도 그중의 한 가정이였다.

주체101(2012)년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문도 없이 자기들의 집을 문득 찾

아주실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들부부였다.

그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집을 찾아주신 그이께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진정을 담아 인사를 올리였다.

다정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방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간난 딸자식의 집을 찾은 친정아버지의 심정그대로 살림집의 여러곳을 세심히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가, 부족한것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안해가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남편이 군사복무의 나날 부대에 찾아오신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정말 복동이들이라고 하시며 그들부부를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신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어쩌면 그리도 소탈하시고 다감하신지 어느새 그이와 신혼부부는 친근한 한식솔이 되였다.

TV는 잘 나오는가 몸소 보아주시고 신혼생활은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 다정하게 물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들은 어려움도 다 잊고 마음속생각을 아뢰였다.

지난 5월에 결혼식을 하고 2개월만에 새집을 받았으며 아들도 낳고 방직공영웅인 어머니를 닮은 딸도 낳겠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그에게 부모들이 집에 와보았는가도 다정하게 물으시였다.

아직 와보지 못하였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진을 찍어 TV로 내보내면 부모들이 보고 기뻐할것이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같은 날 어버이장군님께서 함께 오시여 동무들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거움에 젖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들부부는 참고참았던 눈물을 끝내 쏟고야말았다.

2009년 7월 공장에 찾아오시여 평범한 직포공인 안주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왔기때문이였다.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가 이룩한 성과를 들어주시고 대단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며 따뜻이 손잡아주시고 자신의 곁에 세워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후에도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의 생활을 세심히 료해하시고 그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태여나 처음으로 친아버지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은 곧 그의 친아버지이시였고 다심한 친어머니이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니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으랴.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부부와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리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창전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 태여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의 사랑과 은정속에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은 그 행복 끝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시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겹쳐드는 행운에 그 기쁨 이를데없었다.

새집들이한 자기들의 집을 찾아주신 절세위인을 바래드리는 그들부부의 두볼로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가정은 신혼부부가정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한 대학 교원의 집도 찾으시여 새집들이기쁨을 함께 나누시였다.

창전거리에 입사한 동무들을 만나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가족성원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집을 받았다는데 집이나 구경하자고 하시면서 집안으로 들어서시였다.

넓은 공동살림방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배치되여있는 여러 방들에 고급가구들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데다가 세면장과 부엌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새집은 정말 궁전같았다.

매 방들을 돌아보시며 방이 모두 몇칸인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전기는 잘 오는가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세면장에 들어가시여 손수 수도꼭지를 여시고 흐르는 물에 손까지 대여보시였다.

그리시고 물이 잘 나온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공동살림방에 이르시여 이 집의 할머니를 안락의자에 앉혀주시고 자신께서도 그옆에 앉으시여 집식구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아들을 내놓고 모두가 교육자들이라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이들을 선생님이라고, 이들의 가정을 교육자가정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교육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말씀도 주시였다.

방바닥을 짚어보시고 겨울에는 좀 추울것같다고 걱정하시면서 자신께 드리는 방석을 할머니에게 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집식구들에

게 집주인들이 살림집이 좋다면 정말 좋을것이라고, 자신께서도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민들이 창전거리 살림집들에 입사할 때 자신께서 일군들과 함께 와보려고 하였는데 정세가 긴장하여 전선시찰을 하면서 바쁘게 일하다보니 늦게야 왔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집주인에게 성냥을 안겨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집들이를 축하하러 가실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 가군 하시였다고, 오늘 새집들이를 한 동무들을 축하하여 술도 한잔씩 붓자고 한다고 하시며 손수 술병을 드시고 집주인들에게 차례로 술을 부어주시였다.

새집들이를 한 사람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고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 먼저 술을 붓는것은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미풍량속이고 인륜도덕이다.

궁궐같은 새집을 안겨주신 절세위인께 먼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축배를 올리고싶은것이 집주인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하건만 그이의 사랑이 어린 축배를 먼저 받아들게 되였으니 그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사랑의 축배를 받아안고 격정으로 들먹이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성냥만 가지고 올수없어 천연색TV와 그릇세트도 가져왔다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덧쌓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교육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이 집에 왔던 기념으로 식구들과 사진을 찍고 가겠다고 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집주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앞으로 교육사업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시고 할머니에게는 건강하여 오래오래 앉아있기 바란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며 집을 나서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로동자가정도 찾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훌륭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집의 둘째아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볼도 다독여주시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몇살인가, 집안에 아들이 한명뿐인가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그러시고 아이들이 자는 방과 공부하는 방에도 들리시여 둘째가 그린 그림을 보아주시면서 그림을 완성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다정히 가르쳐주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고 어디에 갔다가 늦어왔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주시고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결의를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집 부부에게도 축배를 부어주시고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기념품도 남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에게 《세계명작동화집》들을 안겨주시며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야 한다고, 둘째는 자신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림을 잘 완성하라고 이르시고 가족이 새집에서 행복하게 잘살기를 바라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살뜰한 정에 온 나라 인민이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새로 입사한 인민들의 집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들의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시며 새집들이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였다.

류례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8년 7월 어느날에는 찌는듯한 삼복의 폭양과 폭열을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이겨내시며 새로 건설된 강원도양묘장을 돌아보시고나서 양묘장의 종업원들인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을 찾아주시였다.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자기들의 집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게 된 집주인들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허물없이 방바닥에도 앉으시여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가정살림형편도 따뜻이 헤아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집주인들에게 새집이 살기 좋은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자식은 몇명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는가 등에 대하여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제대되여 농업대학을 나왔다는데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에 대하여서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부부가 군사복무시절에 입던 군복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신 맞은켠 벽면에 나란히 걸어놓은것을 보시고 항상 마음속군복을 벗지 말고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이 행복하기 바란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한가정의 어버이가 되시여 살림살이형편에 대하여 물어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축복해주시고도 떠나시기에 앞서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절세위인의 은정에 그들부부는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듯싶었다.

2021년 11월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흥농장지구에 특색있게 건설된 농촌문화주택들을 돌아보시면서 한 농장원의 집을 찾아주시였다.

한폭의 그림같고 농촌진흥의 표준답게 훌륭하게 꾸려진 집, 더우기는 부모들도 아직 와보지 못한 자기들의 집을 먼저 찾아주신 그이께 집주인들은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그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고 살림집을 꾸린 정형이며 생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은 세간나간 자식의 집을 찾은 친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 그대로였다.

어찌 그뿐이랴.

평양에서 삼지연시에 자원진출한 세쌍둥이자매가 사는 새집에도 들리시여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가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신 후 집주인들과 함께 계단이며 살림방들을 돌아보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앞날을 축복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세상을 둘러보면 인민을 위한다고 자처하는 정치가, 위인들도 있다.

하지만 인민사랑의 뜨거운 열과 정을 안으시고 나라일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인민을 돌보고 위해주시는 그런 령도자, 그런 위인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한분뿐이시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면서도 그것을 리용할 사람들의 사소한 편의와 리익까지 다 보장해주고 실현시켜줄 때 비로소 인민을 위한 일을 하나 하였다고 잠시나마 시름을 놓으시는분, 한가정의 어버이가 되시여 새집들이한 평범한 인민들을 찾아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뜨겁고도 무한한 어버이사랑에 매혹된 인민들이 부르는 《인정의 세계》의 노래소리가 오늘도 이 나라의 하늘가 멀리 울려퍼지고있다.

…

억만금 준대도 인정은 못사 세상이 부러워하네
저 하늘 끝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한 인정의 세계
아 인민과 맺으신 정 혈연의 피줄로 이으신분
우린 한시도 떠나 못살아 원수님 그 품을

❀ 보금자리 주인들의 그후 이야기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모되여가는 공화국에서는 해마다 문명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 인민들이 행복한 살림을 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세위인의 크나큰 사랑속에 현대적이며 훌륭한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여 감격에 겨워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심장으로 웨쳤던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보다 문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시려 끝없는 로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자신의 불타는 헌신으로 인민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새집들이한 가정들을 찾고찾으시며 사랑의 축복도 안겨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인민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만을 더해주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품에서 이 땅의 인민은 누구나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두려움을 모르고 행복만을 알며 산다.

오늘도 복받은 인생을 누려가는 보금자리의 주인들은 세월

이 흘러도 변함없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참된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주체108(2019)년 4월초 어느날, 이날은 삼지연시의 세쌍둥이자매들에게 있어서 한생에 잊을수 없는 뜻깊은 날이였다.

바로 이날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살림집에 입사한 그들의 가정을 찾으시고 크나큰 사랑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였다.

나서자란 정든 수도를 떠나 백두대지로 용약 달려와 청춘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수놓아온 그들이 삼지연시에 영원히 뿌리를 내린 사연을 친아버지의 정을 담아 들어주시고 정말 기특하다고, 시대가 낳은 청년들의 미덕이고 본보기이라고,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자신께 꼭 편지를 쓰라고 하시며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시기 삼지연시의 세쌍둥이자매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 삼지연시꾸리기 등 여러 공사들에 참가하여 자기들을 키워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 나날에 그들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고 높은 국가수훈도 받아안았으며 둘째는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자라났다.

귀중한 청춘시절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긴 세쌍둥이자매의 소행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신 절세위인께서 이들

의 가정을 몸소 찾으시여 안겨주신 사랑은 그대로 이 나라 인민모두가 받아안은 사랑이였다.

온 나라 인민은 마치 자기 딸, 자기 누이, 자기 동생이 받아안은 기쁨이기라도 한듯 세쌍둥이가 하루빨리 결혼식을 하여 이 땅에 만복이 넘쳐나는 또 하나의 새 가정이 태여나기를 축복하였다.

마침내 대상자들을 정한 삼지연시의 세쌍둥이처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누구나 뵈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집에 모신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이렇게 온 나라가 부럽도록 친아버지께 딸들이 아뢰이는 마음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였으니 이 세상에 자기들처럼 복받은 세쌍둥이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편지에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친아버지에게 자기의 대상자들을 선보이는 딸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 한생의 길동무에 대해 하나하나 아뢰인 그날부터 세쌍둥이처녀들은 이제나저제나 소식을 기다렸다.

그때 삼지연시에서는 벌써 결혼식날이 다가오기라도 한듯 그 준비로 들끓었다.

세쌍둥이네 부부가 살 보금자리들에 세간들을 갖추어주기 위해 마음쓰는 일군들도 있었고 그들의 결혼상을 잘 차려주고싶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세쌍둥이부부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자기들에게

와닿게 되리라는것을 미처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비행기를 띄워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으며 세쌍둥이처녀들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세상에 사랑의 이야기 하많아도 과연 언제 어느때에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세쌍둥이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비행기가 뜬 례가 있었던가.

어제는 낳아준 부모들도 와보지 못했던 새집에 먼저 찾아오시여 딸자식의 소행인듯 대견하게 여기시며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런데 또 오늘은 세간나는 자식을 위하는 세심한 친어머니의 손길로 사랑의 선물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였으니 세쌍둥이처녀들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 만복이 넘쳐흐르도록 보살펴주시는 친어버이의 따뜻한 정에 목이 메여 평양하늘가를 우러렀다.

그들만이 아닌 온 삼지연시가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펼치며 잠들지 못하였다.

절세위인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어 깊은 밤 세쌍둥이처녀들이 사는 살림집에 찾아

온 삼지연시의 주민들도 있었다.

뜻깊은 결혼식날 만복이 넘쳐흐르는 보금자리에 울리는 감격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아버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쌍둥이의 심장의 목소리만이 아니였다.

온 나라 가정들에 만복이 넘쳐흐르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그리며 터치는 삼지연시인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9월 몸소 찾아오시여 새집들이를 축복해주신 창전거리의 교원가정에서도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이 가정에서는 경사에 경사가 겹치였다.

세대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고 그들부부는 많은 제자들을 훌륭히 키워 사회앞에 떳떳이 내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으로 손주들이 태여나면 주라고 이르시며 안겨주신 《세계명작동화집》의 주인들이 태여났으며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내외간과 두 딸이 참가하는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다.

지금도 명절날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이 집에서 명절을 같이 쇠고싶어 왔다고 하면서 이웃들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주인내외와 딸들은 성의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이웃들을 대접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집에서 명절을 함께 쇠자고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한식솔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복을 안고 오시여 우리 집은 만복이 넘쳐흐르는 모두의 따뜻한 보금자리이라고 말하군 한다.

절세위인의 축복속에 만복이 넘쳐흐르는 가정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지난 시기 자연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에 새로 일떠선 보금자리들에서도 행복의 꽃이 만발하고있다.

특히 피해지역에 고향을 둔 제대병사들은 너무도 달라진 고향풍경앞에서 누구나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군사복무시절 절세위인의 사랑과 은정속에 자연피해를 말끔히 가시였을뿐 아니라 훌륭한 새집들이 일떠서고있다는 소식과 거기에 보금자리를 폈다는 부모들의 편지를 받아안고 고마움에 잠 못이루었던 그들이였다.

정작 제대배낭을 메고 고향땅에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그대로 천지개벽이였다.

주변풍치와 어울려 규모있게 들어선 문화주택들, 그속에서 마음껏 웃으며 뛰여노는 아이들…

더우기 그들은 집집마다에 금방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십여년은 실히 되였음직한 감나무며 살구나무들과 같은 과일나무

들이 서있는것을 보고 저으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문설주를 잡고 선뜻 방안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모들이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건설자들이 집은 새로 다시 지어줄수 있지만 집둘레에 심은 과일나무야 몇년이 지나서 덕을 볼수 있지 않는가고 하면서 마을에 남아있는 나무들을 한그루도 다치지 않고 새 살림집을 건설하였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를 당한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모두가 말하고있다고, 정말이지 잃은것보다 얻은것이 더 많다며 눈물을 머금었다.

인민이 누리는 행복에는 자그마한 티도 없어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전하는듯 푸른 잎새를 활짝 펼치고 있는 과일나무들을 바라보며 제대병사들은 만복이 넘쳐나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기어이 보답하리라는 일념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사랑의 조치에 의하여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강북리나 대청리, 홍원군과 신흥군인민들과 제대병사들의 심정뿐이 아니였다.

자연피해를 받았던 지역의 인민들모두가 자기들에게 만복이 넘쳐나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있다.

멀고 험한 길을 제일먼저 헤치며 달려오시여 단 하나의 미흡한 점도 없는 완전무결한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도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도 그이께서는 만복이 넘쳐흐르는 인민의 보금자리들을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주시기 위하여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위민헌신의 려정을 이어가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2022년 2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가 승인한 수도건설전망계획에 따라 화성지구에는 앞으로 3년안팎에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이 들어앉은 웅장한 거리들이 일떠서고 새 주민행정구역이 생겨나게 된다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방대한 공사를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열정에 넘치신 말씀을 받아안는 인민의 가슴은 희망과 환희로 설레였다. 머지않아 온 나라가 하나의 문명의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될 그날을 그려보며…

절세위인을 모시여 복받은 대지에 그이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만복이 넘쳐흐르는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인민들은 보다 휘황할 래일을 마중하고있다.

[일화]

손님이 알려준 집값

언제인가 창전거리에 새집들이를 한 로동자의 집을 찾은 어느한 외국인이 집값이 얼마인가고 물었다. 그런데 무상으로 집을 받은 집주인이 그것을 어찌 알수 있겠는가.

질문을 한 외국인은 입을 딱 벌렸다. 다음 집에서도 또 다음 집에서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외국인은 집주인들이 집자랑에 흥이 나 하다가 집값이 얼마인가 하는 물음에만은 말문이 막힐 때마다 대신 말해주었다. 자기 나라에서 이만한 집을 가지려면 수십만US$를 내야 한다고…

그런즉 손님이 주인에게 집값을 알려준셈이다.

그래도 의문을 풀지 못한 외국인은 어떻게 되여 이런

훌륭한 집을 거저 가질수 있는가, 혹시 당신들의 가족이나 친척중에 권력자나 재력가가 있지 않는가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이 거리에 새집들이한 가정들의 대부분이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이다, 우리가 이 집을 받은 리유를 구태여 찾아본다면 창전거리에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기 전에 바로 이 거리에서 살았다는것이다,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낡은 집을 헐고 단 1년사이에 더 크고 더 훌륭한 아빠트들을 건설하여주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외국인은 끝끝내 의문을 풀지 못한채 머리를 기웃거리며 돌아갔다.

그후 귀국한 외국인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주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의 평방수와 값을 모르는 〈행복한 바보〉들이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리유를 모른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인것같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어찌 알수 있으랴.

그들은 인민중시, 인민사랑이 구현된 조선식사회주의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보금자리에 비낀 사랑의 세계

필　자　김 경 호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1(2022)년 5월 18일
발　행　주체111(2022)년 5월 21일

ㄱ−1539ㄷ

ISBN 978−9946−31−157−9

ISBN 978-9946-31-157-9
9 789946 311579